



2011년  
제6회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대회

일시 | 2011. 6. 11(토)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주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THE KOREAN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S

후원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목 차

## □ 제6회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대회 소개

·대회 개요 .....	1
·세부 일정 .....	2
·참가자 명단 .....	3

## □ 발표대회 자료(가나다순)

·갑천중학교 ‘여우비’ .....	7
·대전여자고등학교 ‘평화의 씨앗’ .....	15
·동천고등학교 ‘역사in’ .....	21
·백마중학교 ‘진실의 문’ .....	29
·부산국제중학교 ‘독.수.리’ .....	49
·부산국제중학교 ‘꾸는 우리’ .....	57
·부산여자중학교 ‘향토조사반’ .....	69
·산마을고등학교 ‘아사’ .....	77
·선덕고등학교 ‘예맥(濼貊)’ .....	85
·설화고등학교 ‘여일(如一)’ .....	91
·양서자율고등학교 ‘양서역(歷)’ .....	99
·양정고등학교 ‘우리 역사탐구반’ .....	105
·오산중학교 ‘문화유적답사반’ .....	111
·울산외국어고등학교 ‘반딧불’ .....	115
·전남외국어고등학교 ‘대자역동’ .....	121



## 제6회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대회

### □ 경과

- 1회 한중일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대회(2006.12.20, 서울역사박물관 강당)
- 2회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대회(2007.9.15, 한국관광공사 대강당)
- 3회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대회(2008.10.10-12, 올림픽파크텔 등)
- 4회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대회(2009.6.13-14, 서울유스호스텔)
- 5회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대회(2010.6.12-13, 국립중앙박물관)

### □ 내용

- 주최 :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후원 : 교육과학기술부
-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 일시 : 2011.6.11(토)
- 참가 규모 : 전국 15개 동아리 지도교사 및 청소년, 관계자 등 100여명
- 주요 일정 : 발표대회 1, 2, 3부,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등

### □ 대회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이용식(상경중학교)
  - 이낙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김훈이(교육과학기술부)
  - 장연환(효명고등학교)
  - 장세운(동북아역사재단)

### □ 시상내역

시상명	시상 인원	수여기관	부상
평화상	청소년(중·고등부 통합) 1팀	교육과학기술부	상장 및 해외 역사 탐방 특전
화해상	중·고등부 각 1팀, 총 2개팀	동북아역사재단	상장 및 국내 역사 탐방 특전
우호상	중·고등부 각 1팀, 총 2개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상장 및 국내 역사 탐방 특전
협력상	중·고등부 총 10개팀	동북아역사재단	상장
우수지도교사상	총15개팀 역사동아리 지도교사	동북아역사재단	상장

세부 일정

날 짜	시 간	내 용	행사장
6.11(토)	09:30~10:00	- 참가자 집결 및 등록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
	10:00~10:30	- 개회식 - 개회사 : 김영소(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 경과보고 - 심사 강평 - 심사위원 소개	
	10:30~12:00	- 발표대회 1부(총5개팀 발표)	
	12:00~13:00	- 점심식사	국립중앙박물관 식당
	13:00~14:30	- 발표대회 2부(총5개팀 발표)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
	14:30~14:50	- 휴식	
	14:50~16:20	- 발표대회 3부(총5개팀 발표)	
	16:20~17:30	- 휴식	
	17:30~18:00	- 시상식 및 폐회식 · 심사 강평 · 시상식 · 폐회사 : 김대영(동북아역사재단 홍보교육실장) · 기념촬영	



순번	지역	학교명	동아리명	인원수	참가자 성명	지도교사 성명	발표주제
11	경기	양서자율 고등학교	양서 역	5	설경영	홍석주	동해 및 독도 관련 역사체험
					유은혜		
					윤세은		
					정진우		
12	서울	양정 고등학교	우리역사 탐구반	5	이루리	이두형, 김기국	끝없는 갈등, 해결책은?
					김영민		
					강민영		
					노지형		
13	서울	오산 중학교	문화유적 답사반	3	장동원	이춘산	외국인을 위한 독도홍보 UCC
					김한울		
					강병엽		
14	울산	울산외국어 고등학교	반딧불	5	김선웅	신광윤	잃어버린 돌사자
					장경윤		
					이경민		
					오지인		
15	전남	전남외국어 고등학교	대자역동	5	손효정	이순일	영산포 근대거리를걷다
					김혜원		
					김선화		
					오하경		
					송은재		
정연수							
최란							
김현석							

# 발표대회 자료



우리가 만들어가는 역사  
-일본의 비인도적 인권유린,  
'강제징용' 그리고 지금-

소 속	대전갑천중학교
지도교사	정현주
참여학생	김희정, 이연진, 문수빈, 이지영, 오민주

# 1. 우리 동아리 소개하기

## ○ 동아리명 소개

안녕하세요?

대전갑천중학교 역사동아리 ‘여우비’입니다. 여러분은 ‘여우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대전갑천중학교 역사동아리의 동아리명 ‘여우비’는 비가 금새 그치고 맑고 화창한 날이 바로 찾아온다는 뜻의 순 우리말입니다. 동아리명을 순 우리말로 된 것으로 짓고 싶어 동아리 구성원들끼리 고심하던 중에 부르기도 쉽고, 그 뜻도 우리에게 희망처럼 다가오는 ‘여우비’를 선택했습니다. ‘여우비’ 맑은 날 갑자기 내리는 비를 말하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여우가 둔갑하는 것처럼 마법적인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햇볕쬐운 날 잠시 흠뻑리는 여우비로 인해 솟아오르는 무지개의 존재처럼, 또 힘든 더운 날에 기분 좋게 내리는 존재처럼 우리 동아리가 가까이는 가족·친구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역사의 그늘진 부분에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고, 힘든 현실 속에서 마법과 같은 힘을 모두에게 선사하고 싶습니다. 우리 ‘여우비’ 구성원들은 모두에게 서로가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역사 동아리 ‘여우비’가 희망을 전합니다!

## ○ 동아리 구성원

순번	성명	성별	학년	역할분담
1	김희정	女	3	UCC 내레이션 및 시나리오 총 담당
				안산 답사 기획 및 총괄
				1분 토론 시나리오 담당
				‘여우비’ 홍보물 제작 및 홍보활동
				카페활동 담당(카페에 UCC 올리기)
2	이연진	女	3	청소년진흥센터 동아리 담당(홍보)
				안산 답사 진행 및 자료 정리
				‘여우비’ 홍보물 제작 및 홍보활동
				동아리 내 역사논술 및 토론 주관
				UCC 제작 및 편집
3	문수빈	女	3	동아리 정기 모임 주관
				1분 토론 시나리오 총괄
				영상물 촬영 및 UCC 편집 총괄
				홍보물 제작 및 홍보활동
				전시회 자료 담당
				‘여우비’ 자료집 사진 자료 담당
				타 동아리와 대표회의 주관
				UCC 내레이션 및 1분 토론 시나리오 공동 작업

4	이지영	女	3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UCC 평가 담당
				UCC 제작 및 편집
				‘여우비’ 자료집 총괄
				전시회 자료 제작
				홍보물 제작 및 홍보활동
5	오민주	女	3	‘여우비’ 자체 평가 총괄
				‘여우비’ 평가 총괄(학생들 대상)
				홍보물 제작 및 홍보활동
				UCC 시나리오 공동 작업
				‘여우비’ 자료집 공동 작업
				자료수집, PPT 자료 제작 및 편집
				전시회 자료 총괄

## 2. 역사체험 활동 소개하기

○ 역사체험 활동 주제 : 우리가 만들어가는 역사 -일본이 저지른 비인도적 인권유린, ‘강제징용’ 그리고 지금-

- 주제 선정 이유 :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동아리는 ‘미래를 여는 역사’를 읽고 토론을 하면서 동아시아사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한·중·일 삼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역사 갈등과 관련한 요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 6회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대회에 대주제를 보고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대회 주제에 매력을 느껴 참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우비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동북아의 역사 갈등과 관련한 여러 주제를 생각하던 중 작년 여우비 1기 선배님들이 만든 UCC를 보면서 “야스쿠니 신사에 강제로 합사된 경우는 어떻게 생긴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강제 징병, 강제 징용을 떠올릴 수 있었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던 중 ‘단바망간기념관’ 관련 블로그 및 뉴스를 접하게 되었고, 강제징용과 관련된 여러 사례들 중 ‘사할린 강제 징용’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현재 영구 귀국하신 분들의 터전이 경기도 안산에 있다는 조사를 통해 사할린 영구 귀국자들이 설립한 노인회와 연락을 통해 답사를 기획하게 되었고, UCC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 역사체험 활동 기간 : 2011.02.10~2011.06.10

○ 추진 방법

1. 실제 답사를 통한 UCC 제작

살아있는 역사의 산 증인들을 만나 동북아 역사 갈등 문제를 몸소 체험하여 UCC로

제작하고, 역사의 산 증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 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었고,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노력과 관심으로 그분들의 그늘진 역사의 한 부분을 알려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을 끌어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답사를 통해 우리 동아리 구성원들의 역사 체험 활동을 극대화시키고, 살아있는 역사의 산 증인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후에도 그 분들과 작은 인연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2. 홍보활동 실시

강제징용 관련 전시회를 실시하여 대전갑천중학교 학생들에게 ‘강제징용’ 및 ‘안산 답사’와 관련하여 홍보하였고, 여우비 자체에서 팸플릿을 제작(역사동아리 ‘여우비’의 활동 및 ‘강제징용’ 관련)하여 대전갑천중학교 학생 및 지역사회, 청소년활동진흥 센터에도 우리의 활동을 알렸습니다.

## 3. 정기활동 및 대외활동 실시

그 과정에서 동아리 정기활동을 통한 역사 논술 및 토론 실시로 역사적 사고력 및 판단력을 함양할 수 있었으며, 전국 중고등학생 연합 카페활동 (www.never.com/forthegrandmothers) 및 대외활동 등을 통해 우리의 의식 수준을 한 차원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활동 진흥센터에도 우리의 활동을 홍보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우비’의 활동 내용들과 UCC 제작과 관련된 시나리오, 여우비 자체 평가 및 대전갑천중학교 학생들의 평가 등을 바탕으로 자료집을 제작하였습니다.

## 4. 그 밖의 노력들

여러 서적을 읽고 토론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역사 교사 및 교장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실시, 영상물 시청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 ○ 활동 내용

날 짜	역사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2월~3월 5일	동아리 조직 및 동아리 회장 선출	3-5 교실, 3-10 교실	여우비 2기 조직 및 동아리회장 선출
2.13~6.4	동아리 정기 모임	3-10 교실	1주일에 1회 정기 모임을 갖고, 역사 논술 및 토론 실시
4월~현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연계한 활동 및 대외 활동	<a href="http://www.dovol.net">www.dovol.net</a> , 국립 대전현충원 등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연계하여 동아리 활동 전개(교육활동, 봉사활동 등), 대외 활동 및 카페활동 ( <a href="http://www.naver.com/forthegrandmothers">www.naver.com/forthegrandmothers</a> ) 실시

4.25~4.29	동아리 답사 기획 및 시나리오 제작	도서실, 상담실	답사 실시를 위한 토의 활동 및 UCC 제작을 위한 시나리오 작업 실시 (1차 답사지- '강제징용' 관련 경기도 안산, 2차 답사지- '대전 지역사' 관련 대전역, 중앙로 부근)
4.30, 5.7	강제징용 관련 영상물 시청	3-10 교실	·사할린, 남은자의 슬픔 ·사할린 아리랑 ·나의 조국, 나의 고향(사할린 아파트)
5.5	답사 실시 및 UCC 촬영	대전 중구, 동구 일대	대전역 부근 답사 (대전역, 중앙시장, 동양척식주식회사, 목척교, 중앙로 등)
5.10	답사 실시 및 UCC 촬영	경기도 안산	·답사 실시 및 UCC 촬영 미리 노인회 회장님과 전화약속 후 5월 19일 경기도 안산 고양마을 아파트를 방문하여 사할린에서 영구 귀국하신 분들을 만나 인터뷰(노인회 회장님, 김삼례, 황영례, 안미자 할머니, 최중기, 정용길 할아버지) 및 그분들의 삶의 터전 답사
5.9~5.13	교내 전시회, '여우비' 평가	교내 중앙현관	교내 전시회를 준비(4.30~5.7)하고, 준비한 결과물을 학교 중앙현관에 전시하고, 여우비 활동에 대한 평가 받음
5.12	UCC 완성 및 시연, '여우비' 자체 평가	3-1교실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UCC를 시연 '여우비' 자체 평가 실시 후 분석
5.13~5.22	'여우비' 자료집 제작	도서관	'여우비' 활동을 바탕으로 자료집 제작 (동아리 소개, 시나리오, 여우비 평가, 구성원들의 소감 등이 포함됨.)
5.23~5.29	팸플릿 제작	컴퓨터실	대전감천중학교 역사동아리 '여우비'의 활동 및 '강제징용' 관련 팸플릿 제작 및 배부
5.31	작은 선물 준비, 편지쓰기	3-10 교실, 우체국	우리나라의 역사가 궁금하신 '안미자 할머니'께 드릴 역사책 구입 및 발송, 할머니께 편지쓰기
6.1~6.6	동아리 CF 제작 '강제징용' 관련 콩트 촬영	상담실	·동아리 CF 제작을 위한 시나리오 작업 및 촬영 ·'강제징용' 관련 콩트 시나리오 작업 및 촬영
6.9	동아리 발표회	도서관	여우비 활동 발표회 준비 및 실시 (교장선생님 및 선생님, 학생들 참석)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료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일본이 저지른 비인도적	UCC	안산 고양마을에 위치한 사할린

	인권유린, 강제 징용		동포들의 보금자리를 방문하여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 대외 활동(청소년 카페활동, 청소년 진흥센터 활동), ‘여우비’ 홍보 활동 및 전시회 준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 등 대전갑천중학교 역사동아리 ‘여우비’의 활동 모습을 담은 UCC
2	본선 발표대회 자료	PPT	2월에 동아리를 결성하면서부터의 역사동아리 ‘여우비’의 활동 모습을 바탕으로 UCC에서 다하지 못한 우리의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만든 PPT
3	여우비 평가지(자체 평가지, 학생들 대상 평가지)	유인물	5월에 안산 답사를 다녀온 뒤 전시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대전갑천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평가) 실시
4	‘여우비’ 구성원들이 만든 홍보물(청소년 진흥센터 등에 홍보)	유인물	대전갑천중학교 학생들 및 청소년 진흥센터에 대전갑천중학교 역사동아리 ‘여우비’의 소개, 활동 내용 등을 담은 팸플릿 제작, 홍보 활동
5	여우비 자료집	유인물	답사기획, 시나리오, 내레이션, 전시회 자료제작과 ‘여우비’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계내고, 그 결과를 담은 자료집
6	전시회 자료	사진(판넬), 유인물	‘강제징용’ 관련 전시회 관련 자료(사진으로 먼저 보내고, 본선 대회에 실제 제작한 홍보물을 가져갈 예정임.)
7	학교 소식지에 낸 기사	유인물	‘여우비’ 활동에 대한 소식을 여러 작년에 이어 ‘수문들 소식지’에 실어 ‘여우비’ 활동을 알림

### 3. 성과 및 향후 계획

이번 제 6회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대회를 준비하면서 동아시아 삼국이 서로 유기적으로 얽힌 역사 갈등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를 연구해보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비록 주제는 ‘강제징용’으로 잡았지만, 그 외에도 앞으로 동아리 활동 때 토론할

주제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여우비’ 구성원들 스스로가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단순한 과거의 역사로 한정짓지 않고, 현재와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역사의 한 부분을 만들었고, 동아리 구성원들이 함께 체험하고, 우리의 체험 활동을 결과물로 만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강제징용’과 관련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만나 뵙고 그 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함께 할 수 있었고, 그 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완성된 UCC 및 자료집, 그리고 전시회, 팸플릿 등을 바탕으로 이분들의 문제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기 초부터 함께한 ‘여우비’ 구성원들은 구성원 모두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우비’ 구성원들은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 존중을 바탕으로 강한 신뢰를 형성하여 가장 값진 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우비’는 대전갑천중학교를 대표하는 역사동아리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연계한 활동, 카페 활동, 대외 활동을 통해 우리의 UCC를 전파할 것입니다. 또, ‘강제징용’과 관련한 문제 탐구 및 해결방안 모색 및 실천은 우리 ‘여우비’의 활동에서 계속 이루어질 것이며, 안산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할아버지, 할머니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것입니다. 또, 지속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해 또 다른 답사를 기획하고, 다른 주제를 정하여 UCC를 제작할 것입니다. 우리 동아리의 역사를 팸플릿에 넣은 것처럼 우리 동아리 자체의 역사도 계속 발전시킴으로써 향후 여우비 3기에게도 그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것입니다.

#### 4. 역사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원	느 낀 점
김희정	동아리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동아리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실제 답사를 기획하면서 우리 동아리 구성원들과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사할린에서 귀국하신 분들의 보금자리인 안산 고향마을아파트에 방문해 오랜 세월동안 고생하신 어르신들을 뵙고 온 점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인터뷰를 실시하면서 정말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당하신 분들과 함께 울며, 또 웃으며 함께한 시간이 정말 뜻깊게 느껴졌습니다.
이연진	작품 내용을 동아리 구성원들과 상의하는 과정이 정말 흥미롭고 보람 있었습니다. 또, 안산에 직접 답사를 다녀왔을 때는 외로움 속에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공감하고, 또 사람이 그리우신 분들을 방문해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정도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정한 주제 말고도 더 많은 주제에 대해 조사하고 싶습니다.
문수빈	UCC 편집을 맡아서 밤늦도록 편집 작업을 하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보람을 느꼈습니다. 강제징용이라는 건 그저 책에서만 읽고 ‘아,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답사를 다니고 역사체험을 실시하면서 동아리 구성원들과 함께 연구하면서 그 아픔이 직접 와 닿아 더 가슴에 남습니다.
이지영	동아리를 조직하고 ‘사할린 강제징용’이라는 주제를 잡아 조사도 하고 답사도 다녀왔다. 이제까지 해보지 못한 역사체험을 한 것이 너무 기억에 남는다. 답사를 통해 강제징용을 당하신 분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고, 하루 빨리 이 문제를 일본과 한국이 평화롭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답사를 통해 우리가 더 앞장서서 이러한 사실들을 많은 분들께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다.
오민주	동아리 구성원들과 함께 역사체험을 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안산에 직접 가서 그 분들이 겪으신 힘든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답사를 갔던 고향 마을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 5. 건의사항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해 보다 다양한 주제의 대회를 많이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량(?)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중·고등학교를 같이 해서 대회를 실시하는 것보다 따로 개최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우리들의 노력  
-평화의 씨앗-

소 속	대전여자고등학교
지도교사	김원정
참여학생	박현숙, 강민지, 이정은, 오영서, 박문영

## 1. 우리 동아리 소개하기

### ○ 동아리명 소개

우리는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에 가입하고, 교내 동아리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역사체험발표대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반크> 동아리원 중 5명이 모여 그동안 우리들의 체험 활동이 거창하고 세련되지는 않더라도 동북아시아 평화에 힘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준비했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노력이 동북아시아 평화의 씨앗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동아리명을 <평화의 씨앗>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 ○ 동아리 구성원

순번	성명	성별	학년	역할분담
1	박현숙	여	2	총기획, 자료수집, 설문 통계, PPT제작
2	강민지	여	2	기획, 자료수집, 설문 통계, PPT제작
3	이정은	여	2	기획, 자료수집, 평화신문제작
4	오영서	여	2	기획, 자료수집, 평화신문제작
5	박문영	여	2	기획, PPT제작

## 2. 역사체험 활동 소개하기

### ○ 역사체험 활동 주제 :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우리들의 노력

- 주제 선정 이유 : 작년(2010년) <역사탐구반> 활동을 통해 동북공정과 독도 왜곡 문제를 접하며 전 세계에 한국이 잘못 알려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여기에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대항했던 우리들의 자세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반성에 머물지 않고 실천에 옮기기로 결심하였고,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에 가입하여 교내 동아리를 결성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우리도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올바른 역사인식을 형성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노력으로 평화의 씨앗을 심고 물과 거름을 주고 정성껏 키우면 우리 주변에 그리고 전 세계 친구들에게 퍼져가서 '올바른 역사인식'과 '동북아시아 평화'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란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 ○ 역사체험 활동 기간 : 2011년 3월 2일 ~ 2011년 5월 21일

○ 추진 방법 : 학습, 설문조사, 토론회, PPT제작, 홍보자료(평화신문) 제작, 답사(독도 전시회 참여)

○ 활동 내용

날 짜	역사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2011. 3. 19 (토)	사이버외교사절단 뱅크 활동	대전여자고등학교 교실	 독도, 동북공정 관련 학습, 토의 및 목표 설정
2011. 4. 16 (토)	한국 홍보물 작성 - 동 아리 카페에 글 올리기	대전여자고등학교 교실	
2011. 4. 30 (토)	독도, 동북공정에 대한 역사인식 관련 설문조사 (10항목) 실시 후 홍보 자료 제작	대전여자고등학교	설문지 통계 결과 독도와 동북공정에 관해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친구들 이 있었음. 그래서 <평화신문>을 제작 하여 배포함. ※ 별첨
2011. 5. 7 (토)	독도전시회 참여	천안독립기념관	 ▪우리 땅 독도가 들려주는 이야기展, 독도를 만나다』 참여 ▪독립기념관에서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한국근현대사 학습
2011. 5. 11 (화)	사이버외교사절단 뱅크 활동	대전여자고등학교 교실	 동북아 평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토의
2011.5.21 (토)	사이버외교사절단 뱅크 활동 -한국 알리는 글 작성	대전여자고등학교 교실	 한국을 알리는 글(영문)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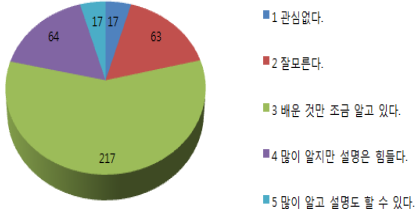
※ 신문 홍보 자료

	<h1>평화 신문</h1> <p>-독도, 동북공정-</p>	<p>[평화의 씨앗]</p> <p>박현숙, 강민지, 이정은, 오영서, 박문영</p>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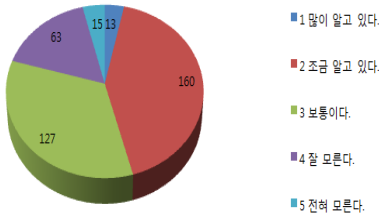
<b>독도, 동북공정 설문조사</b>	1.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14가지 역사적 증거
----------------------	-----------------------------

조사대상: 대전여자고등학교 2학년

1. '독도의 가치, 역사, 위치', '고구려, 발해의 역사'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2. 현재,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갖기 위해 주장하는 내용, 방법, 이유 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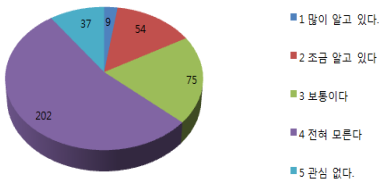


독도, 서기 512년부터 한국 영토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의 '조선왕국전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  
일본 고문헌과 일본 고지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기록  
17세기말 일본 정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  
19세기 일본 메이지 정부 공문서, 독도와 울릉도 한국 영토로 확인  
일본 내무성, 독도와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확인  
일본최고국가기관(태정관) 독도와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결정  
19세기말 대한제국 정부, 독도와 울릉도를 정확히 한국 영토로 표기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독도를 한국 영토로 세계에 공표  
일본, 1905년 독도 강제 편입  
연합국, 1946년 1월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군령 발표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 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규정  
유엔군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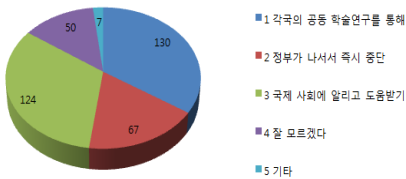
2. 일본의 주장

- 한국은 1430년부터 약 300년간 울릉도까지 공도정책으로 영유권을 방기하였고 일본이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독점하였다는 것입니다.
- 1905년 정식 영토편입조처로서 원시적 권원을 확정적 권원으로 대체하였다는 것입니다.
- 1905년 일본내각의 결정과 시마네현 고시로서 독도를 일본영토에 정식 편입하였고 이 조처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로서 이미 사실상 존재하던 원시적 권원을 실정 국제법이 요청하는 정식권원으로 대체하기 위한 법률행위였다고 합니다.
- 그들은 무주지, 즉 주인 없는 섬인 독도를 선점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 1905년 시마네현 고시 공포 이후, 일본은 독도를 일본의 관유지로 토지 대장에 등재하였을 뿐 아니라, 독도 주변 지역에 대해서 어업을 허가하고, 1940년에는 이를 해군군용지로 사용한 사실 등,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만 한 재반의 증거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 독도의 일본영토편입은 1905년에 완성된 것이며, 1910년에 합병된 한국 영토들과는 관계없는 별개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3.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4. 한국사 왜곡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동북공정문제?

동북지역 즉, 만주지역 역사에는 고조선, 고구려, 부여, 발해, 요, 금 등이 있는데 중국이 이 지역의 있는 이러한 역사들을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문제이다. 특히 우리나라 역사인 고조선, 고구려, 부여, 발해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려고 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1.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이유

1. 아시아 동북지역 고대문명을 중국의 것으로 삼으려는 문명적 침략.
2. 북한지역 역시 중국의 영토라는 주장을 합리화
3. 동북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의 정체성을 말살

2. 중국의 역사 왜곡 현황

1. 고구려·발해·고조선의 우리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
2. 백두산을 장백산으로 부르며 2004년 중화 10대 명산 중 하나로 지정, 유네스코에 중국의 자연유산과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 신청
3. 2018년 동계올림픽을 백두산에서 유치하기 위해 준비 중
4. 만주에 단군공원을 만들고 그 안에 웅녀조각상을 건립 자신의 선조로 교육 중
5. 한민족의 노래 아리랑마저도 중국 것이라고 주장

3. 동북공정에 대해 바로 알아야 할 사실들

1. 동북공정은 중국 최고 지도부의 지시에 따른 국가 전략

	2. 고구려사와 발해사 심지어는 고조선사까지도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방대한 역사왜곡 3. 한반도가 본래 중화민족의 뿌리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 4. 정치·외교·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중국의 치밀한 계산이 반영된 것
--	---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료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우리들의 노력	PPT	체험활동내용 정리

### 3. 성과 및 향후 계획

스스로 기획하고 직접 느끼고 활동하는 다양한 역사 체험은 단순한 지식 전달보다 관심과 흥미를 높였고, 현재의 역사적 과제에 대해 자신의 삶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정적이고 극단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인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우리 스스로 중심이 되어 다양한 역사 체험 활동을 기획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 것이다. ‘한국 바로 알리기’, ‘동북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 을 주제로 한 자료를 제작하여 구조 예술제(학교 축제) 때 전시하고 홍보하기, 해외 펜팔로 한국홍보하기 등 동북아 평화를 위해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하는 주체로서 역사를 느낄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할 것이다.

### 4. 역사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원	느 낀 점
박현숙	이 대회를 준비하던 내 모습을 기억해보니, 부족한 점이 많아서인지 욕심과 조바심을 많이 낸 것 같았다. 그러나 5명 모두 열심히 했고, ‘대회 참가’ 그 이상의 것을 이룬 것 같아 뿌듯하다.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재미를 느꼈고, 난 아직 배울게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강민지	지금까지는 왜곡된 우리의 역사를 접하게 되면 냄비처럼 끓어올랐다가 금방 식어 관심 밖으로 여기기 쉬웠다. 이번 역사체험을 하면서 왜곡된 우리의 진실된 역사를 바로 알게 되었고, 역사 왜곡으로 위협받고 있는 동북아의 평화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동북아 평화를 만드는데 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정은	이번 활동을 통해 얻게 된 것들이 많다. 친구들과 함께 모여 우리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의논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는 것부터가 나에게 큰 의미였고, 독도와 동북공정에 관한 자료들을 직접 찾아보고 전시회도 다녀와서 이를

	바탕으로 토의도 하면서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오영서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역사, 독도, 동북공정과 관련된 것을 다루며 느낀 것이 많다. 무엇보다 그동안 동북공정, 독도에 대해 많은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화만 냈던 나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우리가 스스로 기획하고 자료를 찾고 또 그 자료를 모아서 신문도 제작하고, 설문조사하고 답사 체험하면서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다.
박문영	PPT를 담당하며 동북아시아에 관한 역사적 문제에 대한 자료를 많이 찾아 보았다.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다. 평소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깊게 살폈다면 알 수 있었던 것이다.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내가 부끄러웠고 앞으로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기회를 만들어 다양한 역사체험활동을 해야겠다.

## 5. 건의사항

# 격동의 역사, 격동의 부산

소 속	역사IN(부산 동천고등학교)
지도교사	성강현
참여학생	박세희, 박성욱, 박상휘, 박영준

## 1. 우리 동아리 소개하기

### ○ 동아리명 소개

「역사IN」이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전치사 'IN'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역사'안에서' 살고 있음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역사적 존재이며 유구한 역사 속에 살아 숨 쉬는 존재임을 자각하기 위해 '다양한 역사학습을 통해 역사 지식을 익힌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둘째, 'IN'은 '사람(人)'입니다. 즉, 역사 학습을 통해 '역사인'으로서 역사적 안목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 안에서 역사를 통해' 진정한 창조적 가치관을 가진 역사가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이런 안목을 갖춘 사람이 많아야 우리 사회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학습, 지역사의 탐구,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교육방식을 통해 이 시대가 진정으로 요구하는 '역사인'이 되기 위하여 「역사IN」을 동아리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 동아리 구성원(본 대회 참가인원에 한함, 실제 인원은 총 7명)

순번	성명	성별	학년	역할분담
1	박세희	남성	고2	부장, 제작 총괄 및 대본, 음향 등
2	박성욱	남성	고2	총무, 행정 및 촬영, 편집 등
3	박상휘	남성	고2	정규멤버, 조사 및 나레이션 등
4	박영준	남성	고2	정규멤버, 조사 및 촬영, 진행 등

## 2. 역사체험 활동 소개하기

### ○ 역사체험 활동 주제 : <격동의 역사, 격동의 부산>

#### - 주제 선정 이유

1) 대외적 상황 : 우리의 소중한 영토인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 이름붙이고 교과서에 자국 영토로 기재하여 가르치는 나라, A급 전범을 신으로 격상시켜 행정수반이 참배하였던 나라, 여성의 청춘을 잔악하게 짓밟고도 사과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는 나

라. 바로 일본의 모습입니다.

대륙을 호령한 고구려와 발해를 자국사로 편입시킬 술책을 쓰는 나라, 잘못된 조약으로 말미암아 얻은 영토를 본래부터 자기네 영토라고 하며 국제법 운운 하며 대화시도조차 거부하는 나라, 다른 민족의 영산(靈山)을 자기네 나라의 아름다운 자연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발악하는 나라. 이것은 중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왜곡으로 얼룩진 ‘행패’를 당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현재 동북아시아 3국은 ‘역사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잘못된 역사를 끊임없이 정당화 시키려고 하는 비열한 술책이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현재 그 어떠한 것도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대내적 상황 : ‘역사’는 ‘애국심’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더 이상 역사를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의 역사학습에 대한 의지가 매우 미약한 상황입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있어 역사 과목은 상위권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필수코스일 뿐 그 외에는 필요가 없는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대통령께서 역사를 고등학교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시며 바른 역사교육을 천명하셨으나 이는 조금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3) 이런 대외적·대내적 상황을 종합해보면 새로운 역사교육이 시급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역사교육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우선, 교과서 텍스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체험활동을 통한 종합교육을** 지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아픈 역사, 잊혀진 역사를** 끄집어내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그 역사의 흔적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주변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 주변의 역사를 찾아가면서 우리 역사에 대한 소중함과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4) 역사IN은 다큐멘터리 <Channel History - 격동의 역사, 격동의 부산> 제작을 통해 **체험학습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으며 ‘전쟁’과 ‘국권피탈’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의 아픈 역사를 되새김질**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를 소재로 하여 국민들이 자기 고장의 역사부터 먼저 **알아야한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격동의 역사, 격동의 부산>을 주제로 삼고 약 3개월간 끊임없는 노력을 거듭했습니다.

○ 역사체험 활동 기간 : 3/18~6/6 (예선:3/18~5/13, 본선:5/28~6/6)

○ 추진 방법 : 예선기간 동안은 다큐멘터리 <Channel History - 격동의 역사, 격동의 부산>을 제작하는데 모든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부원 네 명 모두가 방송에는 문외한이였기에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미디어에 관한 전반적인 시민교육을 받고, 실제 방송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으로부터 여러 가지 조언을 들으면서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한 다음 ‘좋은 영상’ 제작을 위하여 철저한 사전조사와 강습회,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역사체험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본선 기간 동안은 예선과는 다르게 ‘학습’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선기간의 활동과 본선 기간의 학습이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보기 편하고, 가장 보기 좋도록!’ 이라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ppt 및 문서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 활동 내용

날 짜		역사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예선	3/18~4/5	사전준비기간	동래구청, 동구청, 중구청, 동아대학교 박물관 등	박세희/박성욱 팀원은 3월 18일과 4월 5일 등에 촬영지에 해당하는 구청과 박물관, 그 외 기관 등에 촬영협조를 구했으며 박상휘/박영준 팀원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기초조사 및 강습회 준비를 맡았습니다.
	4/7 4/18 4/29	1차 강습회 2차 강습회 3차 강습회	동천고 내	강습회는 사전조사를 한 팀원이 중심이 되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제로 결정된 임진왜란에 대한 길라잡이부터 시작하여 부산진성 전투와 동래성 전투의 전투상황, 일제강점기 부산의 도시모습의 변화 등을 중점적으로 학습하였으며 다큐멘터리 촬영에 대한 회의를 하여 팀원간의 일체감을 공고히 다지는데 테마를 두었습니다.
예선	4/10 4/21 4/30 5/1 5/7	1차 촬영 2차 촬영 3차 촬영 4차 촬영 5차 촬영	부산광역시, 동천고 일대	다큐멘터리 촬영은 총 5회에 걸쳐 했습니다. 1차 촬영은 부산진성 일대와 부산근대역사관 등을, 2차 촬영은 정공단과 롯데백화점 광복점, 부산경남본부세관 등을, 3차는 동아대학교

				박물관 등을, 4차는 동래읍성 일대와 충렬사, 수안역 내 동래읍성임진왜란역사관 등을 촬영하였으며 5차는 학교 내에서 인터뷰 등의 촬영을 하였습니다.
	5/9~10 5/11 5/12	편집 나레이션 녹음 상영회	박성욱 팀원 자택, 부산시청자 미디어센터, 동천고등학교 성화실	5/9~10은 박성욱 팀원의 자택에서 편집을, 5/11은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박상휘 팀원의 나레이션을 녹음했으며, 당일 재편집을 거쳐 5/12에 멤버들과 지도교사님과 함께 상영회 및 평가회를 개최하면서 예선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본선	5/28	4차 강습회	동천고 2-2	본선에 대한 사항을 회의하고 예선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더욱 완벽한 준비를 꾀하고자 강습회 및 회의를 동천고 2-2반에서 실시하였습니다.
	6/1	5차 강습회	동천고 중학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비 특강을 겸하여 본선준비에 대한 전략을 토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선	6/1 ~6/6	예선자료정리 본선제출문서제작 ppt제작	개인자택	박성욱, 박영준 팀원은 예선자료를 정리하고 본선에 제출할 본 문서에 대한 전반적인 작성작업을 담당하였습니다. 박세희, 박상휘 팀원은 ppt제작과 더불어 본 문서에 대한 최종적인 정리작업을 담당하였습니다.
	6/4	6차 강습회	동천고 2-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비 특강과 함께 일제강점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일제강점기 부산의 영역 및 도시모습 변화에 대해 팀원간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5	7차 강습회	동천고 2-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비 특강과 함께 본선에 대한 마무리작업, 활동평가 및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학습을 하였습니다.
	6/6	충렬사 참배	충렬사	현충일을 맞이하여 충렬사를 방문하여 순국선열들에 대한 추도의식을 가졌으며, 주변에 위치한 동래읍성의 흔적을 간단히 돌아보았습니다.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료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1. 제6회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대회 본선 보고서	hwp	지정된 양식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본 문서)
2	2. 격동의 역사, 격동의 부산	ppt	본선 대회 당일 발표할 ppt자료입니다. (파워포인트 2010으로 만들어졌으며, ppt안에 쓰여진 폰트인 나눔고딕체와 나눔손글씨 폰체를 다운받으셔야 가장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3	별첨1. channel history - 격동의 역사, 격동의 부산	wmv	예선에 제출했던 다큐멘터리입니다. 혹시, 채점에 필요하실까봐 보내드립니다.
4	별첨2. 다큐멘터리 대본	hwp	예선에 제출했던 다큐멘터리의 대본입니다. 혹시, 채점에 필요하실까봐 보내드립니다.

### 3. 성과 및 향후 계획

1. 팀원 모두의 전반적인 역사 학습 능력의 증가가 큰 성과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예선과 본선 준비를 통해 다각도의 면에서 역사를 바라보니 이제는 전반적인 면에서의 역사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비 자체특강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 학교 내에서 역사IN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예선에서 통과되어 본선진출이 확정된 이후에 많은 교사/학생분들이 우리 동아리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 동아리로서는 대단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역사IN은 <Channel History 2> 연내제작 등을 추진하고자 실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특강등을 통하여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블로그나 카페, SNS등을 통해 역사IN을 홍보하고 역사IN이 진행중인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려가고자 합니다.

### 4. 역사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원	느 낀 점
박세희	<p>지난 3개월간, 정말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예선을 준비하면서도 ‘우리 정말 될까?’하는 의구심이 저는 물론이고 모든 팀원을 괴롭혀왔습니다. 본선 진출을 확정받고, 그동안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습니다. 작년, 대회에 제대로 참가도 못하고 깨져버린 임시동아리를 살리기 위해 선생님과 학생들을 설득하던 일도 그렇고, 이번 예선과 본선기간 중 힘들었던 일을 떠올리니 정말 감개가 무량했습니다.</p> <p>역사라는 것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할 게 더 많아지는 놀라운 학문입니다. 그러나 그게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역사IN 활동을 통해 역사라는 학문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모두에게 알려나가고 싶습니다.</p> <p>이제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대회라는 프로젝트는 끝이 나게 되겠지만 영원한 역사IN멤버로서 팀원 모두와 함께 더욱 활기차고 도전적인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p>
박성욱	<p>작년 12월 역사동아리 모집을 한다는 말을 듣고 바로 가입신청을 했습니다. 3월달부터 바로 대회준비에 돌입을 했는데, 예선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원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각자 맡은바 일했습니다. 부산의 유적지와 박물관을 탐방하면서 부산의 역사에 대해서 더욱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관심을 두고 있었던 전쟁사를 다큐로 만들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게 대단히 좋았습니다. 열심히 해준 팀원들에게 너무 고맙고 지도교사님 사랑합니다!♥♥♥♥♥</p>
박상휘	<p>팀장과 다른 모든 팀원들에게 너무 고맙다. 동아리 활동이란 게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모두가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도와주어 대단히 고맙다. 역사를 좋아한다는 그 마음 하나로 역사IN에 가입을 했었다. 가입 당시에는 이런 대회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시야도 넓어졌고 앞으로도 이런 대회에 참가할 때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p> <p>이번 역사체험 발표대회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자산으로 기억될 것 같다.</p>
박영준	<p>내 고장에 역사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부산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올바른 역사를 학습하고 또 그것을 알려나가는 역사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p>

## 5. 건의사항

1.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대회의 시행일을 7~9월로 옮겨주실 것을, 예선때도 썼지만 지금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동북아역사재단이 왜곡된 우리나라의 역사를 올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는 최고의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주셨으면 합니다.

고구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소 속	백마중학교 '진실의 문'
지도교사	안효숙
참여학생	유영근, 박선민, 이서진, 전예은

## 1. 우리 동아리 소개하기

### ○ 동아리명 소개

이탈리아의 산타마리아인코스메딘 성당에는 ‘진실의 입(bocca della verita)’이라는 유적이 있다. 강의 신 흘르비오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는 이 유적은 거짓을 말한 사람이 손을 넣으면 손이 잘린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다. 이는 역사가가 주관주의적 역사관을 자기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경계하는 내용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전설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동아리의 이름에 반영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역사를 해석해보는 취지를 가진 동아리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손이 가져다 준 음식물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입’보다는, 사람이 직접 열어야지만 그 내부를 보여주는 ‘문’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동아리 이름을 ‘진실의 문’이라고 정했다.

### ○ 동아리 구성원

순번	성명	성별	학년	역할분담
1	유영근	남	중3	문헌연구 및 정리, 김치 동영상 제작, 보고서 작성
2	박선민	여	중3	활동계획서 작성, 문헌연구, 고구려 동영상 제작
3	이서진	여	중3	문헌연구, UCC 콘티, 김치 동영상 제작, 홍보물
4	전예은	여	중3	문헌연구, 설문지 제작, 고구려 동영상, 세미나 준비

## 2. 역사체험 활동 소개하기

### ○ 역사체험 활동 주제 : 한중간의 역사, 문화적 갈등의 실상 및 완화 방안 탐색

- 주제 선정 이유 : IT산업의 중심지로서 세계로부터 각광받고 있는 한국과, 엄청난 인력과 영토를 바탕으로 급부상하는 중국은 미래 세계의 중심지가 동북아시아로 옮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역사 갈등들이 존재하며, 이는 양국의 화합과 공동의 이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평소에 역사에 관심이 많아 이러한 역사 갈등을 살펴본 결과, 중국이 ‘통일적다민족국가론’에 근거하여 한국의 여러 역사, 전통들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데서 여러 갈등이 비롯된다는 것을 알았다. 당연한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

도, 또 한중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중국의 역사왜곡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막아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이번 체험활동의 주제를 ‘한중간의 역사, 문화적 갈등의 실상 및 완화 방안 탐색’으로 결정하였다.

○ **역사체험 활동 기간** : 2011년 4월 7일 ~ 2011년 5월 12일

### ○ **추진 방법**

백마중학교 역사동아리 ‘진실의 문’은 ‘한중간의 역사, 문화적 갈등의 실상 및 완화 방안 탐색’이라는 주제로 체험활동을 진행하였다. 우선 역사 갈등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 국회도서관을 방문하였으며, 다양한 논문, 학술지, 서적을 이용하여 갈등에 관련한 학계의 다양한 역사적 접근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역사 관련 주장들을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알고 있다면 한중간 소통을 통한 역사 갈등 해결이 수월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에 다른 학생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교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절반가량이 중국이 역사를 왜곡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으며, 안다고 해도 대부분은 역사적 근거 없이 단순히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정도였다. 그러나 희망적인 부분은 역사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절반가량 있었으며, 관심이 없는 학생이라도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된다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학생이 과반수였다는 점이었다.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역사가 재미가 없거나 암기가 너무 많다고 답변하였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동영상 자료 제작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고구려의 눈물 1,2’, ‘김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였으며,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였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동영상을 공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교내에 동영상 홍보물을 부착하고, 동영상에 대해 성실히 답변한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열어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렇게 제작한 동영상을 외국인에게도 알리고자 영문 동영상을 제작하려 하였지만, 혹시나 우리가 만든 동영상이 제3국의 입장에서 살펴보았을 때는 너무 편협하지는 않은지 의문이 들어 교내 영어 원어민 선생님께 동영상의 내용을 설명한 후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인천공항, 창덕궁에서 브로슈어를 배부하며 외국인들과 나눈 대화, 중국 문화원을 방문하면서 새롭게 느낀 중국의 문화적 특징 등을 바탕으로 세 개의 동영상을 영문판으로 제작, Youtube, Facebook, Nate에 탑재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내 세미나를 개최하

여 지금까지 활동 내용을 발표하고, 결과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수정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번 역사체험활동을 마쳤다.

○ 활동 내용

날 짜	역사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4/7	연구주제 및 체험활동 방향 선정	본교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간의 역사, 문화적 갈등의 실상 및 완화 방안 탐색’이라는 주제 선정</li> <li>•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역사의식 신장과 역사적 지식들의 효과적 공유방법 모색 및 실천을 중점적으로 체험활동을 진행하기로 결정</li> </ul>
4/9~15	문헌조사 및 토의	국회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에 필요한 학술지, 논문 자료, 서적 대출 및 조사</li> <li>• 토의를 통한 새로 알게 된 정보 공유 및 타 학생들과의 공유방안 모색</li> </ul>
4/21~23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	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지를 작성하여 교내에 600여 장 배부</li> <li>• 설문 결과 통계 및 문항별 분석</li> </ul>
4/24~27	동영상 제작 및 학교 홈페이지 교수학습자료 센터에 탑재 (www.baekma.ms.kr)	본교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구려의 눈물 1,2’ 동영상 제작 및 탑재, 퀴즈 이벤트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부였다는 사실을 반박하는 역사적 근거 6가지 제시)</li> <li>• ‘김치의 눈물’ 동영상 제작 및 탑재, 퀴즈 이벤트 (김치는 중국의 파오차이가 1,500여 년 전 건너가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3가지 근거를 들어 반박)</li> </ul>
5/4	교내 포스터 제작 및 부착	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영상에 대한 관심 유발을 위한 포스터 제작 및 교내 게시판 부착</li> <li>• 동영상 탑재 시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퀴즈 제시 및 퀴즈 정답자와 성실한 댓글을 단 학생에 한해 소정의 상품 지급</li> </ul>
5/4	원어민 선생님 인터뷰	본교 영어 체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내 영어 원어민 선생님 Shane Jankunus께 인터뷰</li> <li>• 제3국의 입장을 참고함으로써 동영상 제작 시 참고</li> </ul>

5/5	인천공항 및 창덕궁 방문, 홍보물(브로슈어) 배포	인천공항, 창덕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간 역사, 문화갈등에 관련한 브로슈어 100여장 출력 및 배부</li> <li>• 인천공항에서 외국인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려 하였으나, 일본이나 중국 측의 항의 여지가 있어 배부가 허락되지 않음</li> <li>• 창덕궁으로 이동하여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홍보물 배부</li> <li>• 외국인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동영상의 편협성 극복 노력 및 영문판 제작 시 참고</li> </ul>
5/8	중국 문화원 방문	중국 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난성 민속 예술 전시물 관람을 통한 중국의 문화 감상</li> </ul>
5/9	영문판 동영상 제작 및 탑재 (www.youtube.com) (www.nate.com) (www.facebook.com)	본교 컴퓨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ears of Goguryeo 1' 동영상 영문판 제작</li> <li>• 'Tears of Goguryeo 2' 동영상 영문판 제작</li> <li>• 'Tears of Kimchi' 동영상 영문판 제작</li> </ul>
5/9	중국 거주 한국인 친구와의 e-mail 교류	본교 컴퓨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중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와 이메일로 교류</li> <li>• 한중간 갈등에 관한 중국 내의 분위기를 알아보고 중국 교과서에서술되어 있는 동북아의 역사를 알아봄</li> <li>• 역사 활동 체험 중 만든 자료 일부 공유</li> </ul>
5/12	교내 세미나 개최	본교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교 회의실에서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사체험 활동 결과물 발표(영상은 대표로 '고구려의 눈물 1' 방영, 김치와 고구려를 둘러싼 역사분쟁의 역사적 근거 발표)</li> <li>• 결과물 관련한 학생들의 질문 답변</li> </ul>
5/12	보고서 작성 완료	본교 상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체험 활동내역을 보고서로 작성 완료</li> </ul>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 료 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고구려의 눈물 1	UCC	고구려에 대한 중국 측의 주장 6가지 중 3가지 소개와 반박 제시
2	고구려의 눈물 2	UCC	고구려에 대한 중국 측의 주장 6가지 중 나머지 3가지 소개와 반박 제시
3	김치의 눈물	UCC	김치의 원조가 중국의 파오차이라는 주장 소개와 이에 대한 반박 제시
4	문헌조사 결과물	문서	국회도서관에서 실시한 문헌조사 결과 알게 된 점 제시
5	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문서	교내 550여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고 알 수 있는 점 분석
6	동영상 구성안	문서	동영상들이 어떻게 제작되었는지를 정리한 구성안 제시
7	교내 동영상 홍보 포스터	사진 파일	학생들이 동영상을 더욱 많이 접하도록 제작한 동영상 홍보 포스터 제시
8	원어민 선생님 인터뷰 내용	문서	편협성 극복을 위한 원어민 선생님 인터뷰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
9	인천공항, 창덕궁 배부 브로슈어	사진 파일	인천공항, 창덕궁에서 배부한 한중간 역사 갈등 관련 브로슈어(공항 규정상 인천공항에서는 일부만 배부, 나머지는 창덕궁에서 배부)
10	교내 세미나 발표 자료	문서	결과물들을 정리하여 교내에서 개최한 세미나 발표 자료를 제시

### 3. 성과 및 향후 계획

○ 성과

- 교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학생들과 한중간 역사 갈등에 대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었다.
- 전보다 많은 학생들이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역사동아리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체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 다양한 곳에 결과물을 탑재하고, 이에 대해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신들의 결과물을 추가적으로 탑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한중간 역사 갈등에 대해 지속적인 공유와 학생들의 관심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학교에서의 배움을 사회 속에서 실천하는 진정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수 있었다.

### ○ 향후 계획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역사체험 활동과 역사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한중간 역사 관련 갈등에 대한 역사적 자료의 습득이 조금이라도 용이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일을 할 것이다.

- 학교 홈페이지에 한중간 분쟁에 관련하여 역사동아리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탑재하여 관심 있는 학생들이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동영상 4부~, 인터뷰 내용 등 탑재)
- 역사동아리 활동에서 얻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중간 분쟁에 관한 학습 자료집을 제작한다.
- 한중간 역사 갈등이 아닌 문화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문화를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와 중국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라는 동영상을 제작, 향후 추가적 분쟁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추후에 청소년들의 역사인식 관련한 설문조사를 재실시하여 처음에 진행했던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 역사인식의 변화를 측정하여 역사체험 활동의 효과를 검증할 것이다.

## 4. 역사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원	느 낀 점
박선민	<p>많은 문헌 연구를 하면서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 특히 동북공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나도 평소엔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선 많이 알고 있다 자부했는데 막상 파헤쳐보니 더 많은 역사왜곡 사례들이 나와서 놀람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는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다.</p>

유영근	이번 역사체험 활동을 통해 학교에서의 배움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았다. 또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교육에서 벗어나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진행하여 얻을 수 있는 산지식들을 얻었을 때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서진	동아리 활동 전에는 역사에 관심이 없었지만 활동을 하던 중 자연스럽게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가 실천 했던 과정 하나하나가 모두 흥미로웠다. 우리의 활동이 주체적이고 팀원 모두가 참가할 수 있어서 좋았고, 홍보나 세미나에서는 조금 긴장하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모두 즐거운 추억이다.
전예은	이번 활동으로 동북공정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내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지식을 정리하고 또 그것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발표한 내 자신이 놀랍고 대견하다. 비록 몸은 많이 피곤하였지만, 처음 가본 국회도서관도 신기하고, 저절로 공부가 되었다.

## 5. 건의사항

대회 개최시기가 중간고사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바뀌었으면 좋겠다. 체험활동을 하는 중간에 시험기간이 있어서 흐름이 끊기며, 시험 후 일주일 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서 시간적으로 여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러한 대회가 있다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역사를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자신의 능력에 도전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다.

<첨부 1 문헌조사>

## 중국의 우리나라 역사 왜곡 실태 및 한국학계의 반박

### I.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1. 중국이 고구려사를 자신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배경

- 가. 중국은 현재 자신들의 영토에서 일어난 역사라면 중국의 역사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統一的多民族國家論)**’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
- 나. 남북의 통일 후 통일된 한중간에 일어날 수 있는 역사적 마찰을 미리 대비

2. 고구려사를 둘러싼 중국과 한국의 최대 쟁점 6가지 정리

가. 쟁점별 중국 측의 주장과 우리나라의 반박<sup>1)</sup>

쟁점	중국 측의 주장	우리나라의 반박
고구려 종족	중국 고이(高夷)의 후예	고조선, 부여와 같은 예맥(濊貊)족
조공의 성격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중국 황제에게 조공을 바침	조공은 강대국과 약소 국가의 전근대적 외교 형식
평양 천도 후의 고구려사	평양 천도 후 고구려는 현재 북한 영토지만 과거 중국의 영토 안에 있었으므로 중국사	현재 영토 내에서 이뤄진 역사를 중국사로 간주하는 중국의 통일적 다민족국가론과도 모순
수(隨)당(唐)과의 전쟁	지방의 반란군과 중앙정부군 간의 전쟁	고구려와 중국의 국가 간 전쟁
유민의 거취	고구려 멸망 후 다수의 지배계층이 중국에 들어와 한(漢)족과 융합됨	다수가 신라로 가거나 발해 건국에 기여
고구려와 고려의 연계성	고구려와 고려는 별개의 국가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

나. 고구려인들의 종족 관련 분쟁

- 1) 1990년대 중국 학계는 고구려 민족의 기원을 예맥족으로 보았으나 최근 우리나라 역사서인 ‘일주서’를 근거로 ‘고이’가 고구려의 조상이라고 주장
- 2) 중국은 최근에 ‘고이’를 중국 전설상의 인물 고양 씨(高陽氏)의 후예로 주장
- 3) **‘일주서’는 신뢰할 만한 사료가 아니며, 고양 씨는 기원전 3,000년의 전설상 인물에 불과**

1) 조종식,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침략, 북방문제연구소, 2008, p.170

다. 고구려가 중국에 조공을 바친 사실 관련 분쟁

- 1) 중국은 고구려가 중국 황제의 책봉을 받고 공물을 바치며 스스로 중국의 지방정부를 자처했다고 주장
- 2) 한나라 때 생긴 공물과 책봉은 전근대 동아시아의 외교형식
- 3) 백제, 신라, 왜 등과도 공물-책봉 관계를 맺고 있었음에도 유독 고구려만을 지방정부로 규정하려는 것은 모순
- 4) 고구려도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천하세계의 질서관을 형성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중국의 속국을 자처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짐.

라. 평양 천도 후의 고구려사에 관한 분쟁

- 1) 중국은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따라 현재 중국 영토 안에서 일어난 역사는 중국사의 범위로 간주
- 2) 장수왕 이후 평양으로 천도한 고구려는 활동무대가 한반도 북부로 변화
- 3) 중국은 ‘동북공정’의 논리를 반복, 과거 중국의 영토였던 곳의 역사도 중국사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국가의 현재 영토 내에서의 역사를 그 나라의 역사로 인정한다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모순

마. 수, 당과 고구려의 전쟁에 관한 분쟁

- 1) 중국은 중앙정부가 중국 대륙을 통일하기 위해 고구려와 전쟁을 벌였다고 주장
- 2) 수, 당과의 전쟁은 고구려의 대륙정책과 동아시아에 중국 중심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노력 간의 국가 간 충돌

바. 고구려 멸망 후 유민과 지배계층의 거취에 관한 분쟁

- 1) 구당서와 신당서에 의하면 총 69만 7000호 가운데 2만 8,000호가 중국으로 이주
- 2) 중국으로 이주한 유민은 주로 왕족이거나 귀족인데, 대부분이 강제로 이주
- 3) 다수의 고구려 유민들은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건국하는 데 참여하거나 신라로 이주

사. 고구려와 고려의 연계성에 관한 분쟁

- 1) 장춘하(중국)는 사람들이 왕왕 고구려와 왕씨 고려를 혼동하여 고려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 착각한다고 주장
- 2) 중국은 고려는 중국 조선족의 선인이 세웠고 고구려는 중국 각 족의 선인이 세웠으나, 오랜 기간 이 둘을 ‘고려’라고 부르다가 둘을 하나로 오인하게 되었다고 주장
- 3) 왕건은 왕으로 추대되면서 국호를 ‘태봉’에서 ‘고려’로 바꾸어 고구려 계승의 식 명확히 함
- 4) 자치통감에서는 왕건이 서역 승려 멸라에게 ‘발해는 나의 훈인’이라고 말한 기록이 존재하며, 후에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배척
- 5) 왕건의 북진정책은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
- 6) 거란 침공 때 서희가 소손녕에게 ‘고려가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하고 평양을 도읍지로 삼았으며, 고구려 땅의 경계로 따진다면 요의 종경까지도 그 경계 안에 있다’고 반박하자 소손녕이 수긍하고 물러감

## II. 중국의 추가적 역사 왜곡

### 1. 발해와 고조선

가. 중국의 만주사 연구지침서 ‘고고여강역’의 내용

‘한사군의 하나인 현도군 구례현에서 고구려가 세워졌기 때문에 고구려는 당연히 중국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고구려 멸망 후 세워진 발해도 중국에 조공을 바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를 맺었다.’ 발해뿐 아니라 고조선까지도 중국사의 일부라고 주장

나. 중국은 중화의 기원을 원나라로 보고 따라서 원이 일어난 지역인 만주를 중국사의 일부로 취급

### 2. 단군신화

가. 중국은 단군신화를 중국문화의 반영으로 봄

나. 단군 신화에 주된 내용인 곰 숭배신앙은 중국문화와의 연계성을 찾기 어려워 근거가 빈약

### 3. 제 3국의 입장<sup>2)</sup> (러시아)

가. 2003년 12월 23일 모스크바 대에서 러시아의 동북아 관련 학자들은 ‘고구려의 현대적 귀속 문제’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고구려 역사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정치가 학문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나. 바닌 교수 ‘중국의 최근 움직임은 분명한 역사 왜곡’, ‘중국의 의도는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한국의 옛 고구려 영토에 대한 연고권 주장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것’이라고 언급

다. 참석자들 ‘고구려 영토의 일부가 현재 러시아 영토인 연해주에 속해 있지만 러시아가 이를 자국사에 편입시키려는 역사왜곡을 시도한 적이 없다’며 간접적으로 중국 패권주의 비판

### 4. 간도 분쟁

가. 한국의 중국학회가 중국학보 48집에 실은 간도의 소유권과 명칭 변화표<sup>3)</sup>

연 대	내 용
BC 37 ~688년	고구려 영토
698~926년	발해 영토
고려~조선	거란 여진족 조선인 혼재
1712년	청나라가 백두산 정계비 세워 조청(朝淸)경계 만듦
1909년	청나라와 일본 간 간도협약으로 중국 귀속

2) 조종석,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침략, 북방문제연구소, 2008, p.191

3) 조종석,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침략, 북방문제연구소, 2008, p.197

1932년	만주국 수립
1945년	일본 패망 후 중국군이 간도지역 점령
1952년	옌변 조선족자치지구
1955년	옌변 조선족자치국
1962년	북한과 중국 비밀리에 백두산 천지 분할, 북한은 간도 요구 중단
2002년	동북공정 2003년 중점 과제 중 하나로 간도 문제 선정

나. 간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역사적 근거

- 1) 한족이 동북을 완전히 지배한 적은 없음
- 2) 동북지역은 단군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에 이르기까지 한(韓)민족이 3,000년 동안 지배
- 3) 1905년 을사조약 자체가 우리의 외교권을 무시하고 행해진 조약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간도협약도 무효임

- 참고문헌 -

- 이인철,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백산자료원, 2010
- 문대원, 21세기 한, 중, 일 역사전쟁, 서해문집, 2009
- 신종원, 중국인들의 고구려 연구 -동북공정의 논리-, 민속원, 2009
- 유영렬, 동북공정과 국가정체성, 과천문화 통전 제 15호, 2009
- 조종석,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침략, 북방문제연구소, 2008

<첨부 2 설문조사>

##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조사 시기 : 2011년 5월 7일  
 조사 대상 : 백마중학교 재학생 565명  
 조사 내용 :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인지도

### I. 설문조사 통계결과

- ▷ 동북공정과 중국의 김치의 원조가 자신들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거나 별 관심이 없다는 답변이 74.3%, 79.5%로 매우 높음.
- ▷ 중국이 역사 교과서에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부로 기재한 사실은 57.17%가 자세히 알고 있거나 알고 있다고 답변함.

▷ 역사에 대해 별 관심이 없거나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답변한 비율은 54.11%로 과반수임.

▷ 역사에 대해 관심이 없는 이유 중 구체적인 해결방안의 제시가 가능한 부분은 56.50%로 과반수임.

1. 동북공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구분	자세히 알고 있다.	알고는 있다.	별 관심이 없다.	전혀 모르겠다.	무응답
인원(명)	20	118	138	282	7
비율(%)	3.6	20.9	24.4	49.9	1.2

2. 중국이 김치가 자신들이 원조라고 주장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구분	자세히 알고 있다.	알고는 있다.	별 관심이 없다.	전혀 모르겠다.	무응답
인원(명)	21	89	114	335	6
비율(%)	3.7	15.7	20.2	59.3	1.1

3. 중국의 역사 교과서에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부로 기재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구분	자세히 알고 있다	알고는 있다.	별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다.	무응답
인원(명)	67	224	182	30	6
비율(%)	13.2	44.0	35.8	5.9	1.1

4.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구분	매우 관심이 많다	관심이 있다	별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다.	무응답
인원(명)	43	209	126	177	5
비율(%)	7.7	37.3	22.5	31.6	0.9

5. 5번에 ‘별 관심이 없다’ 또는 ‘전혀 관심이 없다’를 선택 하셨다면 그 이유는?

구분	그냥	재미없어서	암기가 많아서	수능 필수 과목이 아니므로	무응답
인원(명)	80	75	51	17	0
비율(%)	35.9	33.6	22.9	7.6	0.00

## II. 조사 결과 분석 및 시사점

▷ 별 관심이 없다거나 전혀 관심이 없다는 답변의 비율이 한 항목을 제외하고 과반인 점은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역사인식 수준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의미함.

- ▷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관련해서는 인지 비율이 높은 편이며, 이는 잦은 언론 보도와 이와 관련한 학교 수업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사료됨.
- ▷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역사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나, 청소년들의 많은 수가 명확한 이유 없이 역사에 관심이 없어 해결이 쉽지 않음을 시사함.
- ▷ 청소년들이 역사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암기 위주 교육의 탈피와 다양한 현장 체험활동을 통한 흥미 유발이 필요함.



“한국이 남아공월드컵을 통해 쓰촨성의 전통 발효음식  
파오차이를 흥내 낸 김치를 세계에 홍보하고 있다”

2001년 일본과의 김치분쟁 이후 또다시 시련을 겪는 김치  
그러나 중국의 파오차이와는 엄연히 다른 김치의 모습  
지금 학교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확인하세요

학교 홈페이지 / 교수학습센터 / 교과자료실 / 2,3학년 역사로 들어가면

‘김치의 눈물’ 탐재

퀴즈 정답을 쓰고, 영상을 본 소감을 답글로 올려주는 학생들에게  
는 맛있는 상품이 우르르 쏟아집니다~

백마중학교 역사동아리 ‘진실의 문’

역사동아리 '진실의 문'

# 고구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퀴즈푸는 방법

백마중 홈페이지 접속

→ 교수학습도움센터 → 2/3학년역사

→ 제목 '고구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영상을 보고 퀴즈답을 답글로 달면

**우조건! 사탕이 팽! 팽!**

백마중 홈페이지 : <http://www.baekma.ms.kr/>

<첨부 4 동영상 개요>

## ‘김치의 눈물’ 동영상

한글판	영문판
<p>① 도입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서히 노래가 나오면서 여러 김치 사진이 빠르게 나온다.</li> <li>- ‘세계 3대 발효 식품 중 하나’</li> <li>‘세계 5대 건강식품 중 하나’ 라고 쓴다.( 세계3대 발효식품 2개와 세계 5대 건강식품 중 4개를 다른 줄에 일렬로 놓고 위아래에 )</li> <li>- 김치</li> <li>-----김치의 눈물----- (제목)</li> </ul> <p>② 중국의 발효음식인 파오차이의 모조품이라 말하는 김치의 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3월 30일 중국 파오차이 협회, “한국의 김치는 중국의 쓰촨 파오차이가 1500년 전에 건너가서 만들어진 것이다.”</li> <li>- 2010년 6월 쓰촨성의 한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도 “한국이 남아공월드컵을 통해 쓰촨성의 전통발효음식 파오차이를 흉내 낸 김치를 세계에 홍보하고 있다.”</li> <li>- 그러나....(강조)</li> </ul> <p>③ 첫 번째 근거 : 역사적으로 김치의 먹기 시작한 시점의 부분에서 생기는 중국 주장의 모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김치를 삼국시대 후기부터 먹기 시작했다.</li> </ul> <p>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상고시대 (기원전 2000년 경~ 기원후 300년)부터 채소를 소금에 담가 먹어 그것이 김치의 시초. =&gt; 그러므로 우리는 삼국시대에 김치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미 널리 먹고 있었다.</p>	<p>① Intr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ictures of Kimchi are shown rapidly as the song starts.</li> <li>- ‘One of the world's three fermented food’, ‘One of the world's five health food’ (Write this with the two and four pictures except Kimchi)</li> <li>- Kimchi</li> <li>-----Tears of Kimchi----- (the title)</li> </ul> <p>② The reality of Kimchi which is said to be the imitation of China's fermented food Paochuai from Chines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 March 30th, 2011, from Chinese Paochuai Society “Korean Kimchi is what Chinese Paochuai was made into 1500years ago.”</li> <li>- In June 2010, Chinese newspaper reported about an article. “Korea is promoting Kimchi which is Chinese Paochuai's imitation through South Africa WorldCup.”</li> <li>- However....</li> </ul> <p>③ First reason : Historically, there is a contradiction with the time when we start eating kimch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ccording to Chinese claim, our country started to eat kimchi in the late era of the Three States. However, We ate vegetables dipped in salt which is the origin of kimchi from the temps ancient (B.C. 2000 to A.C. 300).</li> </ul> <p>So we didn't accept kimchi in the era of the Three States, but already it was eaten generally.</p>

<p>④ 두 번째 근거 : 김치와 파오차이의 어원을 비교하면 지금 김치라 불리는 옛 침채의 어원이 더 적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오차이(=포채) : ‘포’는 담그다, ‘채’는 채소. 말 그대로 ‘채소를 담그다’(여기선 술에)</li> <li>- 김치 : ‘채소를 소금물에 담그다’라는 의미, 이름변화 : 침채 - 텃채 - 덩채 - 짐치 - 김치</li> </ul> <p>⑤ 세 번째 근거 : 김치와 파오차이의 만드는 방법을 비교했을 때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오차이 : 소금, 산초잎, 고추, 물 등을 넣고 끓여서 식힌 후에 바이간 얼주(술)를 넣어 하루 동안 절인다.</li> <li>- 김치 : 소금에 절이고 짧게는 3주, 길게는 몇 년 가량의 숙성기간을 거침. =&gt; 유산균 풍부</li> </ul> <p>(하루 만에 절인 음식 vs 최소 3주간의 기간 동안 발효시킨 음식)</p> <p>⑥ 김치의 위상과 일본과의 김치 전쟁 때처럼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과위원회에서 2000년 9월에 인정받음.</li> <li>- CODEX총회에서 2001년 7월에 인정받음 =&gt; 국제규격으로 지목, 세계로부터 인정받음.</li> <li>- 2000년, 2001년 일본과의 김치 전쟁 때처럼 다시 한 번 정부, 학계의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li> <li>- 국민들의 관심이 우리의 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li> </ul> <p>⑦ 마무리 : 기획, 연출, 제작, 지도교사,(노래 페이드 아웃), 끝인사 BGM : John Powell - Romantic John Powell - The Dragon Battle</p>	<p>④ Second reason : To compare kimchi and Paochuai's derivation of a word, the Chimchae of ours is more similar to the kimchi today than Paochuai of chines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aochuai (=Pochae) : ‘Po’means to dip, ‘chae’ means vegetable. So it means 'To dip the vegetable(in certain alcohol)', literally.</li> <li>- Kimchi : It means ‘To dip the vegetable in the salt water’</li> </ul> <p>Change of names : Chimchae - Timchae - Dimchae - Jimchi - Kimchi</p> <p>⑤ Third reason : There is a decided difference in the method between Kimchi and Paochua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aochuai : Put in salt, chinese pepper leaf, red pepper, water, etc - boil it - cool it- preserve it in Bygan Uljewel(alcohol) for a day.</li> <li>- Kimchi : Preserve the vegetable in the salt water for 3weeks to few years for mature =&gt; Abundance of lactobacillus</li> </ul> <p>(food preserved for a day vs food fermented at least 3weeks)</p> <p>⑥ Status of Kimchi and persuasion for atten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cognized by a subcommittee in 2000 September.</li> <li>- Recognized by CODEX general assembly in 2001, July. =&gt; Got pointed out as a Codex Alimentarius, recognized around the world..</li> <li>- Just like during the kimchi war with Japan, we need citizens interest to keep Kimchi from getting taken.</li> </ul> <p>⑦ Completion : Planning, direction, making, teacher who lead,(song has to fade out), BGM : John Powell - Romantic John Powell - The Dragon Battle</p>
---	--

## <고구려의 눈물 1-구성안>

### ① 도입부

-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야)로 구성
- 특히 광대한 영토의 고구려
- 고구려가 수, 당의 지방정부였다?

-----고구려의 눈물1----- (제목)

### ②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이에 대한 반박

-(1)고구려는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였다?

⇒조공제는 당시 동아시아 전체에 걸쳐서 적용된 외교형식이었으며  
중국이 신라, 백제, 왜 등과 맺은 조공관계는 동등한 관계이다.

-(2)고구려 멸망 후 유민의 대다수가 중국으로 흡수되였다?

⇒고구려 멸망 후 69만여호 가운데 3만8000여 호만 중국으로 강제이주  
당했으며 나머지 대다수는 고구려 유지에 남아 발해 건국에 일조하거나  
신라로 들어갔다.

-(3)고구려와 수, 당과의 전쟁은 중국 내부의 지방정권의 반란이다.

⇒수와 당은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여러 차례 패배했으므로 승전국인  
고구려가 독립국인 것은 당연시. 그리고 포로교환에 관한 여러 역사적  
기록들이 남아있다.

### ③ 고구려에 관한 관심과 도움 호소

- 찬란했던 우리 민족의 그 때, 고구려.
- 우리의 무관심 속에 고구려가 빼앗기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 비록 동북공정은 2007년에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 우리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이면 큰 목소리를 이루어 고구려를 지킬 수 있습니다.

### ④ 마무리: 제작진 소개, 감사합니다. 끝인사.

BGM : John Powell-Forbidden Friendship,  
John Powell-Battling The Green Death,  
무니-아름다운 나라



지피지기백전백승  
- 知독도, 守독도!

소 속	부산국제중학교
지도교사	김지숙
참여학생	김지은, 조윤수, 정채윤, 박재현

## 1. 우리 동아리 소개하기

### ○ 동아리명 소개

독.수.리는 ‘독도를 수호하는 이성의 힘’의 줄임말이다.

우리는 모두 영토문화사랑학교의 구성원으로써 독도 지킴이 활동을 해오던 중 ,대다수의 사람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 주장하면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물으면 꿀 먹은 벙어리마냥 아무 말도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주장만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고 듣는 이로 하여금 신뢰하게 한다. 독도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작정 우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성의 힘을 가지고 일본의 왜곡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독도와 그에 대한 일본의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홍보함으로써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서의 영토분쟁이 종식되는데 작은 힘을 보태고자 동아리를 결성하였다.

### ○ 동아리 구성원

순번	성명	성별	학년	역할분담
1	김지은	여	중3	조장으로서 총괄적 정리, 중국어.
2	조윤수	여	중3	자료 조사 및 홍보자료 등 영상 촬영, 영어.
3	박재현	여	중2	아이디어 제공 및 영상 출연, 편집, 영어.
4	정채윤	여	중2	아이디어 제공 및 자료 조사, 영상 출연, 일본어

## 2. 역사체험 활동 소개하기

### ○ 역사체험 활동 주제 : 지피지기, 백전백승 -知독도, 守독도

#### - 주제 선정 이유 :

동아리명인 ‘독도를 수호하는 이성의 힘’과 같은 이유이다. 우선,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백 번 모두 이길 수 있다는 것으로, 상대편과 나의 약점과 강점을 충분히 알고 싸움에 임하면 이길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손자병법에서 전쟁에서의 최상의 병법으로, 계략으로써 승리하는, 즉 싸우지 않고서 이

기는 것이다. 삼천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이 ‘병법’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우리나라가 취할 자세로 훌륭하게 재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주장과 정책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우리 측의 반박과 그것을 뒷받침할 정확한 역사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이미 이긴 거나 다름없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이해와 정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자로 나타내었고, 또한 아는 것을 널리 퍼뜨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독도를 지키게 하자는 의미로 지킬 수자를 사용했다.

○ 역사체험 활동 기간 : 2011년 4월 1일 ~ 2011년 12월 1일

(2010년 4월부터 조원들 모두 부산광역시지정 영토문화사랑학교 동아리의 일원으로 활발한 독도 지킴이 활동을 해왔음)

○ 추진 방법 : 조사, 학습 후 자료집을 제작하고 교내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

○ 활동 내용

날 짜	역사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4월1일	동아리 결성	학교	조원들이 모두 모여서 동아리명을 짓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수립하였다. 각자가 하고 싶은 분야를 정해 역할을 분담하였다. 또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역사체험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4월4~5일	- 첫 번째 과제 - 일본 주장의 오류 찾기 및 우리의 반박 정리하기	도서관, 학교, 집	그동안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내세웠던 주장들을 인터넷과 책, 신문 등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고, 작년 일 년간 나름대로 이해한 독도에 대한 지식들을 바탕으로 일본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해보았다. 서로의 반박이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호평가를 통해 부족한 주장은 보완하고 잘못 알고 있는 정보는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4월11일	- 두 번째 과제 - 일본의 독도 강탈을 위한 정책과 활동 조사	학교 모듬학습실	역할을 분담하여 일본어 능력이 뛰어난 조원은 독도 일본 정책 관련 기사를 수집, 번역하고 나머지 조원들은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있는 활동들을 조사하였다.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등 최선의 방법으로 독도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4월18~26일	- 세 번째 과제- 세계의 독도 에 대한	(각자 집에서 인터넷 활용)	조원 4명 각자의 언어능력을 활용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일본, 영미권까지 네티

	여론 조사	구글, 네이버, 야후, 소후, 바이두 등 세계의 포털사이트	즌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도와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정확한 홍보가 이루어졌는지 알아보았다. 각자 일주일의 기간 동안 외국 포털사이트 등에서 조사하고 나름대로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홍보가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였고 각 나라 정부의 이해관계를 배제한 네티즌들의 순수한 의견은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것으로 모아졌다. 하지만 정확한 증거를 모르거나 잘못된 정보가 퍼져 있는 등 미흡한 점도 보였으므로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독도 대외 홍보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5월 2일	- 네 번째 과제 - 개사곡 만들기	학교 모둠학습실	우리 주변에서 독도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이 없는 친구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그런 친구들에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알리고 독도에 대해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개사곡을 만들었다.
5월 6일 이후	- 다섯 번째 과제 - 학교 홍보 활동	학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른 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행위에 대해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는 학교 학생들에게 독도가 왜 우리 영토인지, 일본의 주장이 왜 억지인지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각 교실과 복도 게시판 등에 홍보 자료를 붙이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독도 동아리 활동을 알리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었다.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료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知彼知己,百戰百勝>	자료집	2011년 상반기 역사체험활동내용의 총 정리
2	독.수.리 조 PPT 자료	ppt	역사체험활동내용 설명, 발표자료
3	활동 사진 자료	한글 문서	활동한 사진 별첨

### 3. 성과 및 향후 계획

이론적인 면에서 우리가 동아리 결성 시 계획했던 것처럼 많은 내용들을 알고 이해하게 된 것이 큰 열매일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세계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 역사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을 다지는 초석이 되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주위 친구들에게도 꾸준히 홍보한 덕분에 독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친구들도 많았는데, 우리가 알고 이해한 이론적인 지식들을 알려주어 이해와 독도를 지키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 그 뿐 아니라 동아리 활동을 하는 동안 구성원들 개인적으로도 독도와 우리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또, 이번 역사 체험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 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 기반을 다진 것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그만큼 앞으로도 이번 역사 체험 활동을 토대로 더 많은 것들을 추진해 볼 것이다.

동아리에 국한해서 기술하자면 첫째로, 학교에서 독도 토론회 등을 열어서 학생들이 토론준비를 하면서 독도에 대해 심도 깊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이때까지 쌓아온 지식을 나누고 다른 학생들의 참신한 주장들도 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둘째는 우리가 만든 개사곡으로 UCC를 만들어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Utube에 올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많은 사이트에 홍보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홍보활동의 폭을 교외로 확대할 것이다. 사람들이 독도 영유권의 진실과 일본의 왜곡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 활동을 쉬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 4. 역사체험 활동 후의 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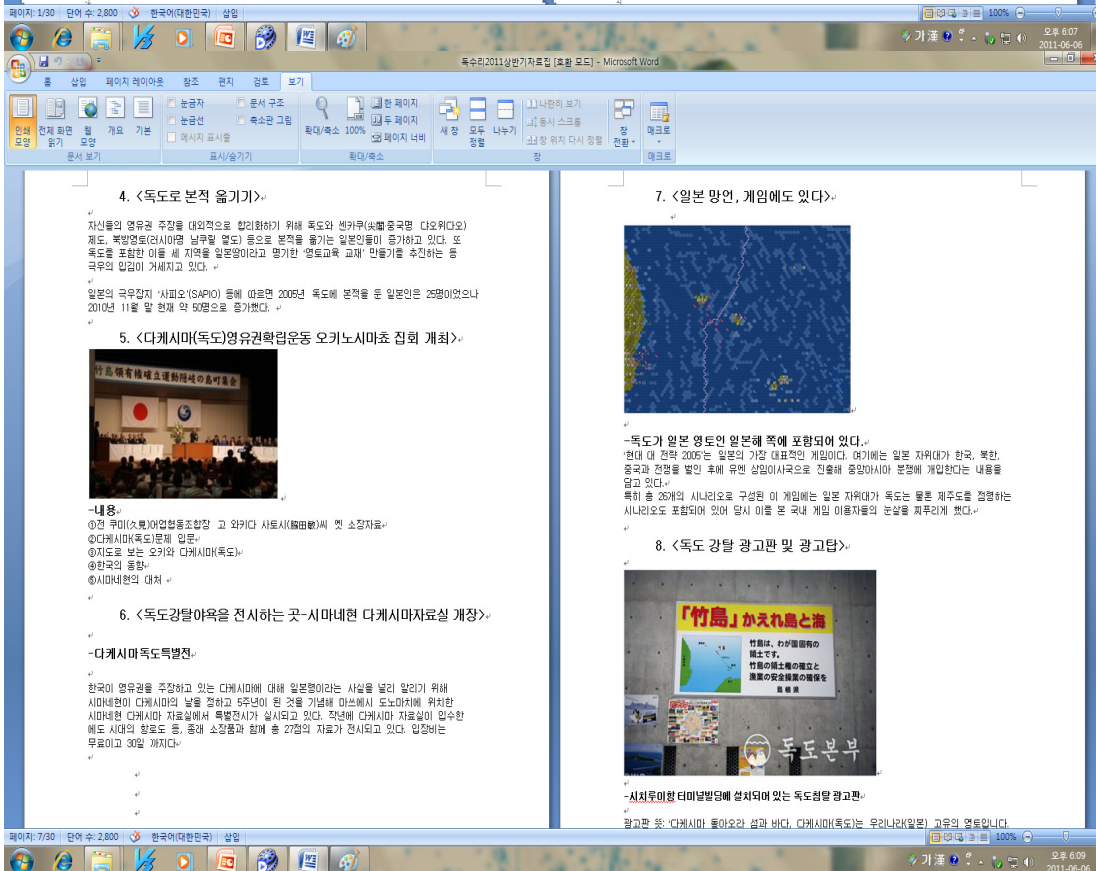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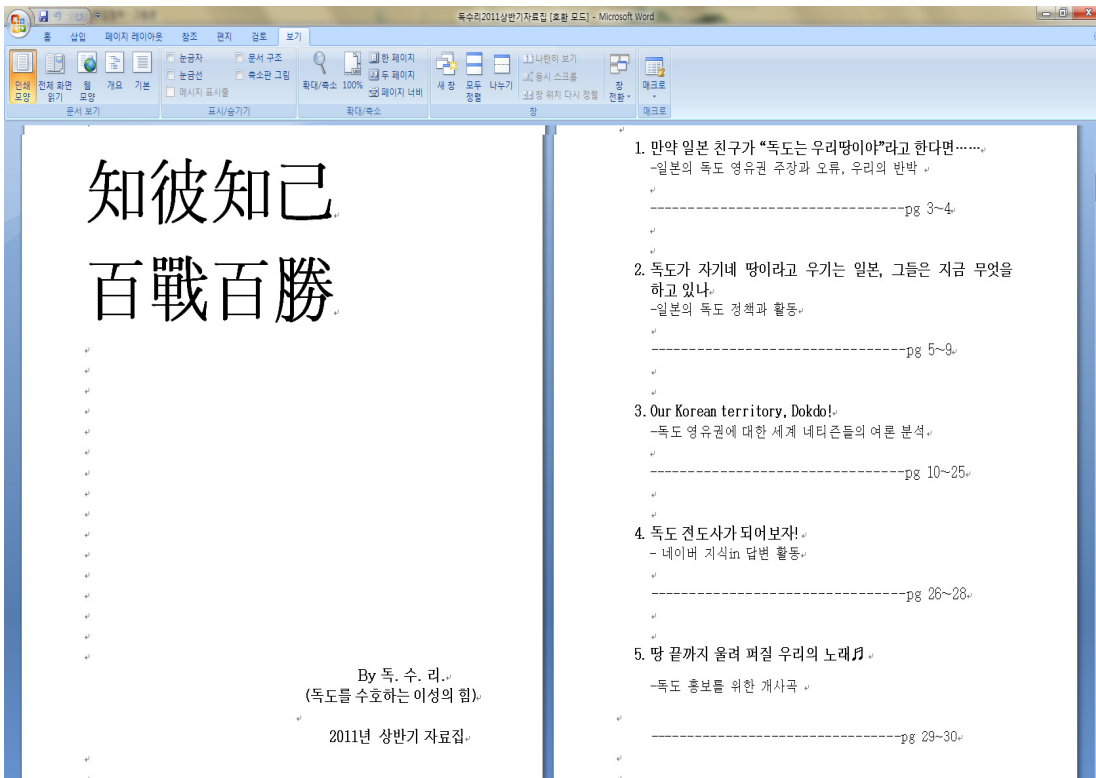
동아리원	느 낀 점
김지은	역사는 나에게 있어서 미래의 가능성과 기회를 깨닫게 해주고, 변화를 일구어낼 용기와 자신감을 주는 든든한 조력자이다. 그런데 명실상부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빼앗긴다면 그것은 우리의 역사, 주권을 빼앗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제 강점기 때를 되돌아보면 알 수 있듯이 역사와 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미래는 매우 암담하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인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역사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이해해야 한다. 어느 분야에서든,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 없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할 수 있는 단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나 자신부터 변화해 미래에 다른 이들을 하나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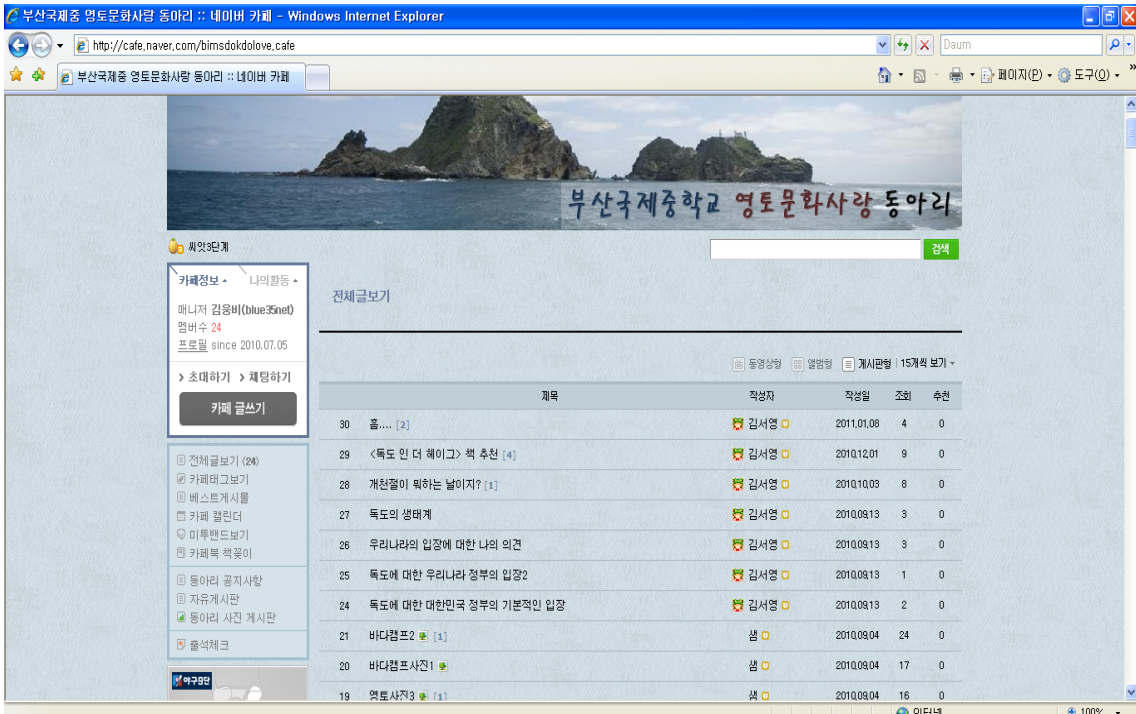
조윤수	나는 학기 초부터 꾸준히 댓글 활동을 하며 네티즌들의 독도에 대한 의견들을 알게 되었다. 또 한국 포털 사이트(다음, 야후, 네이버)에 영토 분쟁에 관한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 한국 학생들의 관심 정도 등을 알아보며 한국이 현재 독도 지킴이 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파악하게 되었다. 이번 체험활동을 계기로 독도를 지켜야겠다는 사명감이 더 커졌고 독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일본이 역사 왜곡을 그만두는 그 날 까지 나는 우리의 독도, 우리의 역사 그리고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박재현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활동을 하기 전에는 미국에서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정치 문제들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줄도 몰랐다. 그리고 학교의 영토문화사랑동아리를 시작하고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큰 성과는 없었는데, 이번 활동으로 독도에 대해 정말로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다.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근거 없이 그냥 우기는 게 아닐까?’하고 생각한 적도 있는데, 사실 수많은 증거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자료들이 있음도 불구하고 우리의 독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적어서 일본이 독도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 분하다. 그래서 이제까지 무관심했던 태도를 버리고 이 독도 지킴이 활동을 더욱 더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다. 역사는 나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독도도 역사의 한 부분이므로 마찬가지로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될 것이다.
정채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독도는 당연히 한국 땅 이라고 생각하고 일본을 비난만 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이며 일본의 독도침략에 침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일본을 말았었는데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 청소년들이 만든 동영상들과 일본의 독도 침략 정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나라가 독도를 지키기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들부터 우리 영토와 역사에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영토를 현명하게 되찾기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 5. 건의사항

동아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도 많고 시도해 보고 싶었던 것들도 많았는데 상반기에 대회가 있다 보니 시간의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 이 역사 체험 발표 대회가 하반기에 있어도 좋을 것 같다.

# <부록> - 자료집 캡처, 사진 활동자료





# 동북공정 인식 바꾸기

소 속	부산국제중학교
지도교사	김지숙
참여학생	음정민, 박현우, 조금주, 한다빈

## 1. 우리 동아리 소개하기

### ○ 동아리명 소개

가  
바꾸는  
꿈  
우리



꾸는우리는 우리 역사를 바꾸고 가꾸고 꿈꾸는 우리를 줄인 말이다.

우리 민족의 좀 더 밝은 미래와 역사 왜곡 없는 날을 꿈꾸고 우리 소중한 역사 즉 후손들에게 물려 줄 역사를 가꾸고 우리 자신뿐 아니라 대중의 잘못된 인식과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바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 동아리 구성원

순번	성명	성별	학년	역할분담
1	음정민	여	3	꾸는우리 로고 제작, 동공맨 만화 그리기, 오프라인 홍보활동, ppt 제작
2	박현우	남	3	오프라인 홍보활동, 사진 촬영 및 편집, 온라인 홍보활동 자료 제작, 자료집 제작
3	조금주	여	3	온라인 홍보활동, 오프라인 홍보활동, ppt 편집, 동공맨 만화 그리기, 자료집 제작
4	한다빈	여	3	온라인 홍보활동, 오프라인 홍보활동, ppt 편집, 동공맨 만화 그리기

## 2. 역사체험 활동 소개하기

### ○ 역사체험 활동 주제 : 동북공정에 관한 인식 전환

- 주제 선정 이유 :

우리 동아리는 작년 발대 이후 여러 역사문제 중 독도에 관한 탐구나 활동을 주로 해왔다. 하

지만 중국이 여러 방면에서 우리 전통의 것을 왜곡하려는 요즘 이번 기회를 통해 동북공정에 관한 우리만의 시각과 의견을 갖고 소중한 역사를 지켜내기 위해 이 주제를 선택했다. 동북공정과 그에 관한 인식 바꾸기는 우리 동아리의 취지 중에서도 '바꾸다'와 잘 맞는 주제이다.

○ 역사체험 활동 기간 : 2011년 4월 30일 ~ 2011년 6월 5일

○ 추진 방법 : 토론(조사 및 학습 포함) 및 홍보

○ 활동 내용

날 짜	역사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4/30	1차 회의	학교	활동 계획 및 블로그, 카페 운영 계획 세움
5/7	토론	학교	한국 및 중국 측으로 나뉘어 토론 및 촬영, 느낀 점 교환
5/8~10	인터넷 홍보	각자의 집	네이트 판, 시민연대, 다음 아고라에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주장에 대한 우리들의 반박을 게시함
5/10	길거리 홍보	부산대 지하철역 주변	부산대역 앞에서 사람들에게 동북공정에 대한 관심 및 지식을 물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두 종류의 홍보자료를 나눠 줌
5/27~6/2	교내 홍보	학교	1차로 홍보 글을 써서 붙였으나 관심을 얻지 못하여 2차로 시각적인 흥미를 끌 수 있는 만화 세 종류를 교내에 각기 다른 장소에 붙이고 만화 따라 사진 찍기 콘테스트를 열어 관심과 참여 유도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 료 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자료집	hwp	예선 보고서 양식에 다 담지 못한 동아리 활동을 상세하게 기록
2	프레젠테이션	ppt	자료집을 제출 했기에 내용 위주보다는 발표 위주로 간략히 만든 프레젠테이션
3	토론영상	압축 파일	우리의 토론을 담은 동영상 파일

### 3. 성과 및 향후 계획

토론 준비를 하면서는 동북공정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게 되었고 토론을 하면서는 중국의 교묘한 주장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보람 있었다. 요즘 중국의 역사나 문화 왜곡이 더욱 심해지고 있어 이에 관한 체험을 한번쯤은 해야겠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동아리 원 모두가 만족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값진 것은 사람들이 보여준 관심과 참여라고 생각한다. 온라인 활동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갖고 우리를 격려해주었으며 오프라인 상에서도 우리 활동에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이 많았다. 이는 사람들에게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이 아직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으며 냉랭하게 홍보자료를 받아들였다가도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글을 읽으며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작은 행동이 홍보자료를 받아 든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역사에 대한 관심이나 경각심으로 자리 잡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다. 교내 홍보 또한 아주 원활히 이루어졌는데 우리 만화를 보면서 학생들이 역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믿는다.

우리 동아리는 앞으로 이때까지 계속해왔던 독도관련 프로젝트를 계속하면서 중국의 문화 왜곡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바로잡으려 한다. 김치의 원조 주장, 한글공정 등 끝이 없이 이어지는 중국의 황당한 억지를 바로잡고 우리 역사와 전통을 지킬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7월 초부터 활동을 재개할 계획이다.

### 4. 역사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원	느 낀 점
음정민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토론 영상을 편집하고, 로고를 제작하는 역할을 맡았다. 새로이 영입된 멤버이기 때문에 더욱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개인적으로는 동북공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고, 조에 있어서는 내 역할을 충실히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우리의 프로젝트로 인해 일반인들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다빈	동북공정에 대해 알리는 설문조사 및 홍보 활동에서 배포된 용지 제작, 편집과 본 동아리의 블로그 관리를 맡았다. 동북공정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했던 사항들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이 현재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반성하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조금주	우리 동아리의 조장을 맡고 있고, 이번 프로젝트에서 역할 분배, 각종 자료 수집 및 수정, 온라인 상 홍보의 일부를 맡았다. 우리역사가 위기에 처해있다,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만 오다가 토론을 해보고 오프라인 상 홍보활동을 하고 사람들의 무관심이 어느 정도이며 우리의 무관심이 지속되고 중국의 교묘한 말장난이 지속되면 동북공정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동북공정을 진지하게 다룬 것은 이번 체험활동이 처음이었고 그래서 더 성과와 느낀 바가 많았다고 생각한다.
박현우	이번 토론을 통해 나는 독도 이외의 역사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독도를 지켜라!" 라고 해서 나는 불과 몇 달 전만해도 독도 문제가 우리나라가 대면하고 있던 가장 큰 역사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중국이 남북통일을 방해하고 고구려의 찬란한 문화를 빼앗으려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놀라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생각해보았다. 이번 토론을 통해 나는 동북공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또 동북공정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게 되었고 또 동시에 어떠한 더 큰 위험들이 존재하는지 궁금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좋은 동기였다.

## 5. 건의사항

없음

\*아래는 참고자료입니다.

### Step 1 우리의 인식을 바꾸다



#### 목적

동북공정에 대한 전반적 지식 점검 및 중국의 주장을 알고 반박

## 과정

5/6 조를 나눠 토론 준비

5/7 토론

## 토론 내용

주제 : 고구려사 및 만주 지역의 역사는 한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의 역사인가?

토론 장소 : 부산국제중학교

토론 일시 : 05/07 (토요일)

중국 측 : 조금주 박현우

한국 측 : 음정민 한다빈

## 토론 후 느낀 점

### 중국 측

#### ○조금주

사실 중국이 근거 없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줄만 알았다. 하지만 중국 측에서 토론을 하다 보니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사료를 찾아보고 말을 만들어 내면서 우리나라가 노력하지 않으면 중국의 동북공정에 충분히 승산이 보인다는 생각을 했다. 자료를 찾다보면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는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중국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사료 중 많은 것들은 신빙성이 있는 것이었다. 또한 고려 말기 건국초기의 마음을 잃고 북진정책이 사그라질 무렵의 기록들이 중국 측에는 아주 유리하게 다가오기도 했다. 우리 정부 측에서 외교적인 관계를 위해서라는 이유만으로 동북공정에 대해 애쓰지 않고 무관심을 유지한다면 중국이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둔갑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토론을 하며 중국의 주장이 그저 헛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놀랐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더욱 절실하다는 생각을 했다.

#### ○박현우

이번 토론을 통해 나는 독도 이외의 역사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독도를 지켜라!" 라고 해서 나는 불과 몇 달 전만해도 독도 문제가 우리나라가 대면하고 있던 가장 큰 역사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중국이 남북통일을 방해하고 고구려의 찬란한 문화를 빼앗으려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놀라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생각해보았다. 이번 토론을 통해 나는 동북공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또 동북공정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게 되었고 또 동시에 어떠한 더 큰 위험들이 존재하는지 궁금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좋은 동기였다.

### 한국 측

#### ○한다빈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동북공정에 대한 반박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다. 동북공정에 앞서 서북공정, 남북공정 등 주변 여러 나라의 역사 왜곡에 성공한 중국이 최근 들어 세계적 위상이 급부상하면서 우리의 역사가 정말로 빼앗길 수 있겠다고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토론에 임하여 조금 더 진지하게 이 문제를 고려해 보는 유익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 ○음정민

2명씩 조를 짜 한국, 중국 편으로 팀을 나눈 뒤 동북공정에 대한 자료를 각자 조사해 고구려사, 발해사, 고려사에 얽힌 동북공정의 사례들에 대해 토론을 하였다. 활동을 하기 전 준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중국, 한국의 입장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었고, 토론을 실제로 진행하며 우리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더 해나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며 좋은 경험을 쌓았다.

## Step 2 홍보

### 1 온라인 홍보

#### 참고

원래 계획은 정부 사이트에 홍보자료 및 설득하는 글을 올려 우리 역사에 조금이나마 더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염두에 둔 사이트가 국민 신문고였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 살펴보니 국가 기관을 선택해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사이트라 우리의 본목적과는 맞지 않았다. 그래서 그나마 원래 의도와 가장 근접하면서 우리의 목적과 맞는 우리 역사 바로알기 시민연대와 그 외 여러 사이트에 글을 올리게 되었다. 중국 정부 사이트에 글을 올리려면 중국 사이트에 가입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 6월 말로 예정되었고 중국어 홍보자료는 우리 블로그에 게시해두었다.

#### 목적

원래는 정부가 우리역사에 관심을 갖게 하기였으나 적당한 사이트를 찾을 수 없어 최대한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동북공정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

#### 우리가 글을 올린 사이트

네이트 판

<http://pann.nate.com/talk/311398036>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시민 연대 자유 게시판

<http://www.historyworld.org/sub04/sub6.html?act=view&target=9768&keyfield=&key=&page=1>

다음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331743&pageIndex=1&searchKey=subjectNcontent&searchValue=동북공정&sortKey=depth&limitDate=0&agree=F>

우리 블로그

<http://blog.naver.com/handabin1436>

#### 올린 글

각 게시판에 알맞은 성격으로 두 종류( 1), 2 )의 글을 게시함

- 1) 관심이 중요하다는 내용 위주
- 2)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반박 내용 위주

#### 중국어 동북공정 반박문

你好吗?我们是韩国的学生。现在我们要说的是关于东北工程的。都知道东北工程是用'关于东北边境地区的历史和现象的有步骤的研究课题'的名称,准备多种根据让高丽史编入中国的历史。这次我们写这篇文章是为

了纠正这个问题。

第一，高句丽史是我们大韩民国的历史。中国现在主张高句丽是中国西汉玄菟郡的边疆民族树立的政权。但是根据中国的多种史书（中国正史），把高句丽的民族称为濊貊族的同时，记入下了濊貊族是韩民族。到现在才根据高句丽民族在现中国领土建国，把高句丽史编入中国史的行为是互相矛盾的。

第二，渤海的历史也是大韩民国的历史。中国主张渤海民族的大部分是靺鞨族.朱雀大路，政治体制都是模仿中国的，所以渤海是中国的历史。但是渤海的政治体制是把中国的政治体制变换成独创的方式使用的。并且大部分统治渤海的支配层都是高句丽人。还有能通过渤海的政治外交文书知道渤海是继承高句丽的国家。在一个国家，是这个国家的头部，既是支配层实现重要作用。在渤海，高句丽人占了重要位置领导了渤海。所以我们高句丽人领导的渤海是我们的历史。

最后，高丽是继承高句丽的国家。太祖王王建是为了继承高句丽，把国家的名字称为了高丽。还有宋国的‘宋史’也记入着高丽是高句丽的继承国。另外，中国主张北朝鲜的历史是中国的历史。但是我们韩民族的生活地基缩小为韩半岛以后，韩半岛一直以来都是我们韩民族的地基。所以中国的主张有点过度。

一个国家的历史对那个民族的根本来说是非常重要的。歪曲一个国家的历史是歪曲一个民族的根本，这是非道德的行为。中国持续主张的行为不但歪曲我们韩国，同时在歪曲着中国民族的根本。我们希望中国不要持续这贪我国历史的行为。还有台北，维吾尔族的历史也一样。谢谢你阅读这个文章。

## 2 오프라인 홍보

### 목적

대중의 동북공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지식을 알리며 동북공정 및 우리역사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

### 과정

5/8 ~ 5/9

홍보 자료 제작 및 홍보 계획

5/10

부산대 역에서 홍보

### 홍보 내용 (사진 포함)

홍보한 내용은 step 2에서 쓴 글을 바탕으로 동북공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물어보고 그에 따라 관심을 가져달라는 내용 위주의 자료와 중국의 주장에 대한 기본적인 반박에 대한 내용 위주의 자료를 나누어 주었다. 활동 장소는 부산대역 부근이었다. 두 자료를 각각 60장, 40장씩 총 100장을 준비해 A5용지 크기로 프린트해 나누어 주었다.

# 잠시만요!

지금 우리역사는 관심을 줘주세요

저희는 우리나라민으로서 알고 있어야 할 중국의 의견에 대한 반박을 알리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중국의 의견에 대한 반박 첫 번째로 고구려는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중국은 현재 고구려를 서한 왕조에서 중국의 번영 민족이 세운 왕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많은 사서중국 정사들에 의하면 고구려민족을 예맥 후이로 칭하며 동시에 예맥 후이(韓)민족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제 와서 고구려민족이 단지 한 중국의 영토 내에 건국했다는 근거를 들어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는 행위는 모순적입니다. 두 번째는 발해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중국은 발해민족의 대부분이 말갈족이고 주적대부, 정치체제 등이 중국을 모방해서 발해를 중국의 역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해는 중국의 정치체제를 독자적으로 바꾸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발해를 지배하는 지배층의 대부분은 고구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발해의 정치 외교 문서를 보면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내용이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머리, 즉 지배층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해에서는 고구려인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서 발해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발해는 고구려인들이 이끌어나간 우리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입니다. 왕건은 고구려를 계승하기 위해서 나라이름을 고려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송나라 때 '송사'에서도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은 북한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지만 한반도도 만민족의 원천이 겸허한 이후, 발해인이 만민족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의 역사까지 넘보는 것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중한 것은 바로 역사에 대한 관심입니다. 왕건의 무관심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무관심이 지속된다면 우리 민족의 뿌리는 왜곡되고 남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소중한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내는 것이 저희 학생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 나누어준 홍보자료 2

부산국제중학교 역사동아리 '꾸는우리'  
 조원 | 송정민 박원주 조규주 함다빈  
<http://blog.naver.com/handabim1436>



▲부산대 역에서 홍보 활동 중인 모습

### 활동 후

우리는 백여 명의 사람들에게 홍보 자료를 나누어주었다. 희망을 가득 안고 시작했는데 몇몇 사람들은 귀찮다는 듯 자료를 받지 않기도 했다. 그런 모습에 섭섭함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심한 표정으로 우리의 자료를 받아 들었다가도 흥미를 가지고 걸어가면서 그것을 읽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생각만큼 홍보 활동이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격려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기에 step3을 잘 끝낼 수 있었다. 받지 않으려 했다가도 글의 첫 문장을 훑어보고는 종이를 받아드는 사람들을 보며 사람들이 우리의 걱정만큼 우리역사에 무관심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애국심은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도 깊다는 것을 알기에 조금만 자극을 주고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다면 우리역사를 잘 지킬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했다. 홍보 자료를 받자마자 버리지는 않을까 염려하기도 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고 이번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희망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시민들에게 부탁한, 역사에 대한 관심이 우리역사를 바꾸고, 가꾸며, 꿈꾸는 그들만의 활동으로 번질 것이라 굳게 믿는다.

### 3 교내 홍보

#### 목적

교내 학생들에게 동북공정에 관한 관심과 참여 유도

####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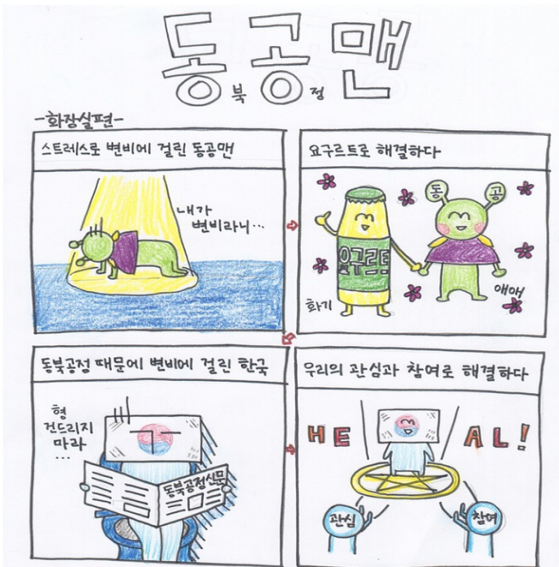
~5/29

만화 구상 및 제작

5/30~6/2

만화 게시 및 이벤트 진행

#### 홍보 내용



동북공정에는 우리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최대한 식상하지 않게 창의적인 내용으로 제작했음

## 후기

학생들이 동공맨(우리 만화 캐릭터)을 굉장히 좋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어서 만화를 통한 교내 홍보활동은 대성공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무조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더욱이 만화 따라 사진 찍기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이 동북공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뿌듯했다.



# 誠信성신! ?를 던지다

소 속	부산여자중학교
지도교사	문애경 선생님
참여학생	이다감, 장윤정, 김지원, 김민정, 고은지

## 1. 우리 동아리 소개하기

### ○ 동아리명 소개

향토조사반은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역사체험동아리이다. 스스로 탐구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새로운 역사적 지식을 알고, 역사적 사고력을 키울 뿐 아니라 체험한대로 표현해보는 활동을 통해 단순히 역사를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문화예술의 창조자로서 경험의 폭을 넓혀나가고 있다. 다양한 답사 현장에서 직접 보고, 만지고, 조작하고, 조사하다보면 교실에서 배우는 역사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다. 제대로 된 향토조사를 위해 사전 학습은 필수이고 현장에서 답사보고서를 정리하는 등 부산의 역사와 문화의 진수를 깊이있게 파헤치고 있다.

또한 향토조사반은 중학 시절 일회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문이 조직되어 있어서 졸업 후에는 부산지역보다 더 넓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답사 활동을 전개하면서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체험적인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 동아리 구성원 - 조선통신사

순번	성명	성별	학년	역할분담
1	이다감	여	3	조선통신사 자료 정리, 일본인과 인터뷰, 파워포인트 제작, 발표, 나레이션
2	장윤정	여	3	조선통신사 자료 정리, 일본인과 인터뷰, 음향 및 자료 수집, 의상협찬, 연극
3	김지원	여	3	조선통신사 자료 정리, 독도 자료 및 이미지 자료 수집, 연극
4	김민정	여	3	조선통신사 자료 정리, 조선통신사 행렬 참가자 인터뷰, 독도 관련 뉴스 자료 수집, 연극
5	고은지	여	3	조선통신사 자료 정리, 독도 자료 수집, 시나리오

## 2. 역사체험 활동 소개하기

○ 역사체험 활동 주제 : 조선통신사와 독도 문제 중심으로 한·일간의 우호적 관계 회복을 위한 방안 탐구

- 주제 선정 이유 : 한국과 일본은 가까이 있는 이웃나라이다. 그 중에서도 부산은

일본 대마도에서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한반도 지역이 다. 이런 지리적인 이유로 조선시대에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국방, 외교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부산진을 중심으로 왜관이 설치되었다. 조선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은 아니다. 임진왜란으로 '불구대천지원수'라고 부를 정도로 일본에 대한 감정이 많이 상하기도 하였으나, 임진왜란 이후 일본의 요청에 따라 조선통신사를 파견하면서 2세기에 걸친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조·일간 외교 관계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 조선통신사의 출발지가 바로 부산이었다. 하지만 조선통신사를 통한 일본과의 선린 우호 관계는 일제의 한반도 침략에 이어진 36년간 일제의 강점기를 거치면서 되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광복 후 일본과의 국교가 회복되었지만 그 후에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 망언, 역사교과서 왜곡 등 역사 앞에 진실하지 못한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의 태도로 한일간은 항상 긴장관계에 있다.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교류 확대를 통해 평화를 시대를 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일본의 도발은 한일간에 평화 시대를 여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최근 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고 때 인류애적으로 일본에 대한 구호활동을 전개할 때 독도문제를 다시 언급하는 일본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또 분노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의 장애가 되고 있는 독도 문제를 조선통신사를 통해 그 해법을 찾아보고자 시도하였다.

○ **역사체험 활동 기간** : 2011년 4월 11일 ~ 2011년 5월 12일

○ **추진 방법** :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행사의 전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조선통신사에 대한 학습과 체험 활동이 이루어졌다. 독도에 대한 자료 수집과 다양한 영상 매체를 통한 학습 그리고, 관련 현장 답사 및 역할극을 통해 독도 문제를 다루었다. 이 두 주제를 연결하여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신교린의 외교 태도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 1.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행사 참가

### (1) 조선통신사 도전 골든벨 참가

- 추천 도서 개별 정리 및 발표, 그룹 스터디

- (2) 영가대의 해신제,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본행사 참가
- (3) 활동 내용 영상으로 기록

2. 독도 문제 탐구

- (1) 포항 MBC 독도의 진실 1,2부 시청
- (2) 다양한 독도 자료 검색 및 정보 공유
- (3) 관련 유적지 답사 - 수영 사적공원 내 수강사(안용복 사당)
- (4) 안용복 역할극

3. UCC 제작 및 보고서 정리

- (1) UCC 제작을 위한 역할 분담 - 시나리오, 자료 수집, 음향 효과, 나레이션, 편집 등
- (2) 보고서 정리

○ 활동 내용

날 짜	역사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4월11일~5월5일	조선통신사 학습 및 조선통신사 도전 골든벨 예선 대회 참가	부산여자중학교, 경남공업고등학교	* 그룹 스터디 - 매일 방과 후 ~ 저녁 8시 30분 - 공휴일 오후 1시~5시 * 4월 16일 - 조선 통신사 도전 골든벨 예선 참가
5월 6일~7일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행사 참가 및 독도 학습	용두산 공원, 영가대, 광복로 일대	* 조선통신사 도전 골든벨 본선 대회 참가 - 1등 수상 * 영가대의 해신제 참가 * UCC 제작을 위한 촬영 *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행사 참가 - 용두산 공원, 광복로 일대 - 일본 참가팀과 교류 * 독도 개별 학습
5월 8일	독도 관련 답사	수영 사적 공원	* 수영 사적 공원 내 수강사(안용복 사당) 답사 및 촬영
5월 9일	독도 학습 및 관련 자료 수집	부산여자중학교	* 독도 그룹 스터디 * 독도 관련 자료 수집 - 영상 및 기사, 관련 학습 * 독도 관련 내용 촬영

○ 제출 자료 목록 - PPT, UCC

순번	자 료 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보고서	문서	역사체험활동 세부내용 소개
2	성신, ?를 던지다.	PPT	동아리 및 역사 체험 활동 소개 UCC 설명
3	성신(誠信), ?를 던지다.	동영상	조선통신사와 독도 문제 중심으로 한일 우호 관계 회복을 위한 방안 제시

### 3. 성과 및 향후 계획

현재 중고등학생이 접하는 역사는 대부분 학교 역사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 따분하고 재미없다는 생각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다양한 역사체험활동은 단순히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다양한 답사 현장에서 직접 보고, 만지고, 알아감으로써 역사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켰고, 보다 생동감 있고, 현실감이 느껴지는 체험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한·일간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무작정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우겼던 우리지만, 이번 역사체험활동을 통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뒷받침하는 여러 근거들을 알아봄으로써 독도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이 더욱 커졌다.

우리 향토조사반은 이번 역사체험을 계기로 사람의 무관심으로 잊혀져있던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지켜나가며, 알려나갈 것이다. 또한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한·일간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져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향토조사반은 지역의 축제와 문화재를 체험함으로써 역사의식과 역사적 사고력 함양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 4. 역사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원	느 낀 점
이다감	요즘 독도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일본 대지진을 위한 여러 구호 활동들을 하고 있는 중에 일본이 다시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런 독도 문제를 포함해, 임진왜란, 일제 강점기, 그와 더불어 사소하다 말할 수 있는 김연아 악마가면 등으로 나는 적지 않은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5월 7일에 열리는 조선통신사 도전 골든벨을 준비하며,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일본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가장 신기 했던 것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통

	<p>신사를 파견해 일본과의 200년에 걸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이다. 성신을 바탕으로 교류한다는 성신교린의 의미를 되새기며 조선통신사에 관한 공부를 했다. 그리고 5월 8일 열리는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행사에도 참가하였다. 행렬 시간 보다 조금 더 일찍 가 준비 중인 일본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사진도 찍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 쑥스러워 좀 더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이 아쉽기도 했다. 그때만은 한국인과 일본인이라는 개념 없이 함께 어울렸던 것 같다. 그러고 보면 나는 일본 사람을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일본이 싫었던 것 같다. 이런 조선통신사에 대해 알아보며 나는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기 시작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순간에 일본이 좋아진 것 또한 아니었다. 임진왜란, 일제 강점기 등이 다 지난 일이라고 해도, 아직 독도 영유권 분쟁이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젠가 외국의 97%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무턱대고 주장하는 것 보다는 독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몇 가지 정도는 알아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안용복 장군님을 모신 사당인 수강사를 방문하고,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는 등 직접 독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무런 근거 없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했던 때 보다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독도에 대한 애착도 커졌다. 독도 영유권 분쟁이 단시간에 해결 될 일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다시 예전처럼 성신교린의 의미를 되살려 우호적인 관계가 되길 바란다.</p>
<p>장윤정</p>	<p>처음 조선통신사 공부를 시작하였을 때, 일본과 200여년 간의 평화를 유지해왔고 그 평화의 안에는 어떤 교류들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게 되면서 매우 신기하였고 지금의 현실에 안타까웠다. 그저 싫기만 했던 일본과 다시 성신교린의 자세로 이웃 나라로써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조선통신사 축제에 참가하고 나니 그 생각이 더욱 커졌다. 여태껏 열리는 줄도 몰랐던 그런 축제였는데 막상 가보니 매우 화려하고 즐거운 축제였다. 생전 처음 본 일본인들과 웃으며 인사하고 양 나라의 민속들을 교류하고 말도 해보고 사진도 찍고 상상도 하지 못 했던 편함과 즐거움이 밀려왔다. 이렇게 축제에 참가한 뒤 독도 관련 답사를 하고 공부를 하니 딱 드는 생각은 안타까움 뿐이었다.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가 사이가 좋지 않은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독도 문제인데 자세히 공부를 하다 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하였다. 왜 이런 문제 때문에 제일 가까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아쉬운 생각만 계속 났다. 여러 가지의 역사 체험을 하면서 정말 자세하고 깊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루 빨리 일본과</p>

	<p>한국이 독도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축제에서의 모습처럼 서로 편하고 벽 없이 교류하게 되는 두 나라의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p>
<p>김지원</p>	<p>평소에 국사를 좋아하고, 관심도 많아서 UCC를 만드는 작업이 아주 즐거웠다. 성격이 소심하고 앞에 나서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서 연극하거나 영상에 나오는 것이 부끄러워 처음에는 망설이고, 수줍어하기만 했는데 점점 하면서 흥미도 느끼고 배우는 것도 많았다. 특히 독도나 역사 교과서 왜곡 등 여러 문제 관해서도 일본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는데, 조선통신사 행렬을 보면서 일본 사람들에 대한 호감이 생긴 것 같다. 물론 문제점은 감추려고만 하고 되려 화를 내는 적반하장의 행실은 가히 기분이 나쁘지만 일본의 국민,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던 문제의 이들이 아닌 정말 진실 되고 유쾌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란 것을 느꼈다.</p> <p>일본과 한국의 정치적, 외교적 사이는 일본 정부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의 독도 및 역사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조치, 그리고 무조건적 배타보다는, 아메노모리 호슈의 성신교린 정신을 되살려 양국의 적절한 상호간 관심과 문화교류가 있다면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 생각한다.</p>
<p>김민정</p>	<p>초등학교나 지금이나 사회, 특히 국사라고 하면 암기과목 또는 교과서에만 치중을 하고 체험활동에 별 다른 관심이 없었을 뿐더러 평소에 여러 체험을 할 기회가 잘 없었다. 그런데 향토조사반에 들어서 동아리 활동으로 이런저런 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무심코 지나쳤었던 장소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곳인지, 예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곳인지 알게 되며 점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역사도 지루하거나 딱딱한 게 아니라 재밌는 소설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좋은 기회로 인해 조선통신사 골든벨에 참여하게 되면서 지금 수업시간에 배우는 조선이라는 나라와 예전의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예로 임진왜란 이후 쪽 나쁘게 전개되었을 것만 같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조선통신사라는 계기로 인하여 비록 마지막에는 정한론에 의해 안 좋게 끝이 나버렸으나 무려 200년간이나 우호적인 관계로 믿음과 진실 된 마음을 가지고 서로 교류하는 성신교린의 관계였다는 것이 놀랍고, 신기했다. 분명 서로 안 좋은 마음을 (특히 조선은 임진왜란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으므로 더했을 것 같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류를 했다는 게 대단하기도 하고 지금도 일본과 우리의 사이가 나쁜데, 계속 억지를 부리거나 역사를 왜곡하려는 생각, 또는 저기는 싫다는 마음만 가지고 적대시하기보다는 예전처럼 서로 교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p>

고은지	<p>난 역사를 좋아하지 않았다. 확실히 따지자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기보단 싫어한다는 쪽에 더 가까웠을지도 모른다. 애초에 암기 과목을 좋아하는 성격이 아닌데 일대기별로 외워야하는 역사는 다른 암기 과목보다 훨씬 더 년더리가 났었다. 그래서인지 UCC 제작활동을 하겠다고 자원하면서도 다른 동아리 원들보다 의욕도 좀 덜했고, 촬영을 해나가는 과정도 썩 달가워하진 않았었다. 애초부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했으니 남들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지치는 것도 더 빨랐던 것 같다. 하지만 그것도 한 순간이었다. 어느 샌가 난 이 활동 하나하나가 재밌게 느껴졌다. 그리고 점점 빠져들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다음엔 무엇을 할지 궁금해 했고, 의견을 나누고 모으는 일을 웃으며 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우리나라 역사와 독도에 대해 파헤치다 보니 평소 좋아했던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지기도 했지만, 그것조차도 활동을 계속 하다 보니 좀 더 그들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예전처럼 막연하게 일본을 좋아하기 보단 그들의 역사도 이해해보자는 식으로 생각이 바뀌었다. 또 한 가지 변화한 게 있다면 우리나라 땅임에도 잘 알지 못했던 독도의 역사나 지리적 성향 등을 더 잘 알게 되고, 조선통신사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이 활동을 하면서 주변에서 힘들다고 그만두라는 소리도 몇 번 들었고, 그럴 때마다 관둘까 하는 생각도 몇 번 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활동을 통해 얻은 것들을 생각하니 그런 생각들을 지워버리고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 그만큼 이 활동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렇기에 난 지금부터라도 이 활동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고 깊게 공부하고 알아가고 싶다.</p>
-----	--

## 5. 건의사항

제대로 된 공지 없이 발표 날짜가 너무 미뤄졌습니다.

# 내일, 더 밝은 아침을 맞이하기 위하여

-한일관계사를 중심으로 한 교류와 답사, 세미나-

소 속	(인천) 산마을고등학교
지도교사	최보길
참여학생	김화란 김지용 이지수 윤다영

## 1. 우리 동아리 소개하기

### ○ 동아리명 소개

순 우리말로 '아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사는 올바른 역사를 위해 과거를 기억하며 오늘 날을 돌아보고 더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가길 바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아사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어우르는 한일 관계사'를 주제로 자체 세미나를 개최하여 동아리 회원들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여왔고, 세미나를 통해 정리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일본 자유노모리 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한일 청소년 포럼"이라는 만남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를 통하여 일제강점기 한일 간의 역사문제에 대한 탐구와 더불어 미래세대인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들이 서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과거사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 미래세대로서 기억해야 할 역사적 가치에 대해 서로 공부해왔습니다. 역사동아리 '아사'는 자체 세미나와 한일 청소년 포럼을 통해 지금 현재에도 살아있는 역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산마을고등학교는 2007년부터 년 2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상호방문을 통한 일본 교류학교인 자유노모리학교와 한일 청소년 포럼 및 답사활동, 청소년 문화 교류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아사'는 동아리 회원들이 준비한 자료와 발제문을 토대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재조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해왔으며, 경술국치 100년에 즈음한 한일시민대회 참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집회 참여 등 각종 역사 관련 행사 참여를 통해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방문시에는 세미나에서 다루었던 주제와 관련된 역사답사를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역사체험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산마을고등학교와 일본 자유의 숲 학교(자유노모리) 차원의 학교간 교류활동을 역사 학습에 활용하여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 ○ 동아리 구성원

순번	성명	성별	학년	역할분담
1	김화란	여	3	한·일 청소년 교류 한국측 대표, 세미나 부분 담당
2	김지용	여	3	한·일 청소년 교류 기획, 사진과 답사 부분 담당
3	이지수	여	3	한·일 청소년 교류 기획, 각종 역사관련 행사 자료 수집, 답사 부분 담당
4	윤다영	여	3	한·일 청소년 교류 기획, 문화 교류 부분 담당

## 2. 역사체험 활동 소개하기

### ○ 역사체험 활동 주제 : “일본 고등학생과 함께 고민하는 일제강점기”

- 주제 선정 이유 : 역사수업시간에 선생님은 “역사 교육의 기본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배우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암기’가 아니라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

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이나 대학입학 관련 시험 앞에만 서면 역사는 암기과목의 대명사로 여겨졌습니다. “살아있는 역사교육”을 이야기하면서도 현실은 “시험을 위한 짧은 지식의 암기”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역사를 교과서에서 꺼내어 역사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한 탐구과제와 현실 속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으로 되살리고 이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느끼고, 말하게 하는 역사체험활동은 앞으로를 살아갈 우리 청소년들에게 역사가 살아있는 것임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처럼 역사에 대한 사전지식은 짧더라도 역사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역사를 스스로 삶의 문제로 가져오고, 미래를 살아갈 우리세대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평화적 동아시아 관계”를 고민하는 데에 체험으로 배우는 역사는 아주 중요한 배움의 과정이 될 것이기에 교과서를 넘어 체험을 통한 활동은 우리들 스스로 역사를 이해하고 넓고 깊게 역사를 고민하는 과정을 갖게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그동안 교류하였던 한국과 일본 학생들의 교류주제였던 징용과 관련한 세미나와 답사를 통해 징용에 관한 여러 배움(징용의 피해, 징용으로인해 또다시 아픔을 겪어야 했던 나가사키의 조선인 원폭 피해자, 징용 현장 군함도, 징용당한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의 입장)을 일본 청소년들과 토론해보고 답사해보는 것으로 언론과 정부만이 아닌 평범한 학생들이 만나서 민간차원의 한일간의 역사쟁점을 이야기한 경험이 소중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번 발표대회 주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역사체험 활동 기간 : 2010년 9월 1일 ~ 2011년 5월 3일

○ 추진 방법 : 세미나, 포럼 및 답사, 교류회, 강연 듣기, 증언 기록 등

○ 활동 내용

날 짜	역사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2010년 1월	한·일 청소년 포럼	일본 사이타마현 “마루기 미술관”	'한국의 히로시마 합천 그리고 한국인 피폭자 1세, 2세 환우'와 '리틀보이와 팻맨, 지구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원자폭탄'을 주제로 한 포럼이 이루어졌다.
2010년 1월	일본 사이타마, 도쿄 지역 답사	일본 사이타마현, 도쿄	조선인 징용으로 운영되던 비행기 군수공장 요시미 하쿠아나(吉見百穴), 야스쿠니 신사, 일본의 시민단체 WAM(전쟁과 여성피해 박물관), 고려신사, 마루기 미술관 등을 답사
2010년 8월	한·일 청소년 포럼 /답사	한국 산마을고등학교/강화, 임진각 등	강화 연미정, 임진각,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일본 친구들과 답사하면서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해 공부하다.
2010년 10월	학교 내 축제 '반올림' 전시 주최&참여	한국 산마을고등학교	경술국치 100년에 즈음한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해 풀어야 할 역사쟁점'이라는 주제로 학교 축제의 일환으로써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 전시회는 아사에서 주최하였지만 참여는 산마을의 학생들이 모두 함께 참여한 합동 전시회였다.
2010년	경술국치 100년 기념 한·일 시민대회 참가 /강제병합 조약 체결지 표석 제막식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새천년홀 /남산	경술국치 100년을 기념한 한·일 시민대회에 참가하였다. 또한 국치일 행사 ‘강제병합조약 체결지 표석 제막식’에 참여하여 강제병합을 공포한 8월 29일 국치의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

			하지 않기 위한 다짐의 자리로서 강제병합조약 체결 현장을 답사하였다.
2011년 1월	한·일 청소년 포럼	일본 사이타마현 지유노모리 고등학교	'한·일 민간 차원 교류의 중요성'을 주제로 산마을 학생들과 지유노모리 학생들의 포럼이 이루어졌다. 한국측 발제 3명, 일본측 발제 3명을 시작으로 민간차원의 교류와 작은 외교, 평화에 대한 토론하였다.
2011년 1월	한·일 청소년 교류회	일본 나가사키 가쓰이 여자고등학교	일본 나가사키에 위치한 가쓰이 여자고등학교의 국제평화동아리와 첫 교류회를 가졌고, 나가사키 피폭당시에 나가사키에 살고 계셨던 선생님의 강연을 들었다.
2011년 1월	일본 나가사키 지역 답사	일본 나가사키	나가사키 평화 기념관과 평화공원, 나가사키 평화자료관, 한국인 징용관련 “지옥의 섬 군함도”를 답사했다. 피폭지였던 나가사키에서 직접 원자폭탄의 참혹성을 공부하면서 그 잔인함을 직접 느낄 수 있었는데, 평화와 인류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평화공원의 조선인 피폭자 위령비를 통해 징용피해와 원폭피해의 이중피해에 대해 공부하였다.
2011년 2월	제999회 수요집회 참가	일본 대사관 앞	그동안 수요시위는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에 대한 활동을 알려내는 장으로, 이념과 성별, 세대를 초월한 평화와 인권을 위한 연대의 장으로,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자리 잡아 왔다.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를 책과 영화, 답사, 포럼 등으로 공부했다면 이번 조속한 해결을 위해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져 제 999회 수요집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각종 문구가 담긴 피켓과 할머니께 보여드릴 울동을 준비해 보여드렸다.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료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내일, 더 밝은 아침을 맞이하기 위하여 -한일관계사를 중심으로 한 교류와 답사, 세미나-	활동자료집	그동안 산마을고등학교 역사동아리 “아사”의 활동과 관련된 자료집, 포럼 발제문, 교류 소감문, 사진자료 등을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2	사진으로 돌아보는 '아사'의 활동 (역사체험발표대회 발표용)	UCC	한·일 청소년의 역사교류와 더불어 행해진 문화교류와 아사의 자체활동, 각 종 행사 참여 등을 사진을 중심으로 하여 간단한 영상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3	이야기가 있는 한일 청소년 교류 (역사체험발표대회 발표용)	PPT	한·일 청소년 역사교류를 중심으로 한 포럼과 세미나, 답사를 사진을 중심으로 하여 발표를 위해 구성한 것입니다.
---	-------------------------------------	-----	--

### 3. 성과 및 향후 계획

‘아사’는 그동안 역사속의 배움을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삶 속에서 살아있는 역사로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암기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글쓰기를 통해 ‘현재의 삶과 연결하는 역사’를 만들어보려 하였고,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위안부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듣거나, 세미나를 통해 더 깊게 이해하려 하였으며, 또 일본 고등학생 친구들과 직접 만나서 서로간의 인식의 문제점 및 국적을 떠나 역사적 진실에 함께 나아가려는 노력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자료집으로 만들어져 또 하나의 역사로서 기록되어 친구들과 나누었으며, 또 동아리차원의 교내 발표로 이어졌고 학교 차원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한일 청소년 교류회를 통해 민간차원의 역사문제접근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한 성과는 크게 다섯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역사적 쟁점에 대한 한국과 일본 학생들의 인식의 차이를 전제로 한일 간의 역사적 쟁점과 현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역사에 대한 체험활동이 경험이 축적되어 내용과 형식면에서 다양성을 갖게 됩니다. 셋째, 교류행사를 위한 체험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역사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이후 학교교육과정 속의 역사교육과 대학교육 속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넷째, 문화교류행사와 함께 진행하고, 또 청소년 문화의 토대위에서 진행되는 토론을 통해 얻어진 친밀감으로 서로간의 의견에 대한 차이를 좁히고, 일본 내에서 역사적 진실에 공감하는 청소년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역사교류 학습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범위이지만 일본 청소년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한·일간의 역사적 갈등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진실을 알리는 민간 외교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사’는 한국 학생들에게는 동아리활동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나누고, 또 일본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민간 외교의 차원에서 한·일간의 역사 갈등을 없애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 4. 역사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원	느 낀 점
김화란	<p>중학생 때는 마냥 역사과목이 시험보기 전에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암기과목이라고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처음 한일 교류 프로그램을 접하고 그 프로그램 안에서의 포럼과 세미나, 답사 등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다보니 역사는 암기과목일 뿐이라는 중학생 때의 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p> <p>아사에서 활동 하고,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하면서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 절실히 알게 되었는데 그야 그럴 것이 위안부, 징용·징병 피해자, 한국인 피폭자, 전쟁과 평화에 대해 공부하고 고민하다 보면 오늘 날까지도 문제가 해결 되지 못하고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숨죽여 아파하는 역사피해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공부를 할수록 더 자세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p> <p>내가 아사에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잊혀진 진실과 역사피해자들의 아픔을 단지 '</p>

	<p>나만의 배움'으로만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 향유하면서 아직까지도 고통 받는 피해자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p> <p>아사에서 점점 더 많은 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하면서 배운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면 산마을과 아사, 그 밖의 큰 도움을 주신 한일 선생님들과 한일 친구들에게 정말 감사하다.</p>
김지용	<p>지금까지의 아사활동 돌이켜보면 후회된 것도 많고, 유익했던 것들도 많았던 것 같다. '동아리활동에 좀 더 활발히 참여할걸…….'하는 아쉬움이 제일 남는다. 무엇이 열심히 해야 나중에 덜 후회한다는 것을 이 활동을 하지 못한 아쉬움으로써 배웠으니 이 또한 나의 성장의 하나의 도움이라 할 수 있겠지? 하지만 무엇보다 아사 활동 중 내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활동은 지유노모리 학교와의 교류 프로그램이었다. 일본 지유노모리 학교와의 교류를 통해서 평소의 나의 생각보다 더 깊고 넓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포럼 주제에 대해서 준비하고, 생각하고, 글로 표현하는 데 열심이었던 것이 가장 기억난다.</p> <p>2009년에 강화에 거주하시는 할아버지들께 직접 일제강점기 증언을 듣고 기록했던 것 또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내가 직접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것의 느낌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역사와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다. 훨씬 생동감 있게 다가왔고 기록을 정리하며 느꼈던 이루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이란, 할아버지들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역사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나중에는 내가 저런 역사를 말하는, 역사를 담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상상도 해보았다.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게 조금은 실감이 났다. 사람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나중엔 역사가 된다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니 역사가 결국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살아온 생활모습들이 나중에는 하나의 역사가 될테니까.</p> <p>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의 내 생각보다 한 층 더 성숙해진 나를 만들어갈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아사부원들과 함께한 유적지 답사와 증언 기록 등은 실제로 보고 느끼는 답사와 살아있는 역사의 소중함을 내게 일깨워주었다.</p> <p>이와 같은 역사 활동들을 하면서 역사는 단순히 그 사건만을 알려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을 보면서 인간이 나아갈 방향과 내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생각을 키우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험에 긴장하며 배우던 역사를 이렇게 활동으로 배우니 더 많은 것을 배운 느낌이다.</p> <p>이와 같은 활동들을 토대로 역사 글쓰기를 하니 글이 더 쉽게 써졌고,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도 알 수 있었다. 과거의 역사에서 오늘날의 사회문제까지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를 배운 아사활동은 나의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 중에서 가장 소중했던 배움이자 추억이라 감히 자신해 볼 수 있다.</p>
이지수	<p>역사동아리 아사에 들어와서 일본에 대한 오해를 풀고, 우리의 모습도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했다. 산마을에 오기 전까지는 일본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의 문화, 사람들을 막연히 미워했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아사에서 다양한</p>

	<p>역사 활동을 하면서 모든 일본 국민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아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활동인 자유노모리 학교와의 교류에 참가하면서 이 교류들을 통해 나는 ‘일본’ 자체의 잘못이 아니라 그 당시 일본의 제국주의와 현재 일본의 식민지 지배 문제를 감추기 급급해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선인 피폭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일본인도 있었고, 야스쿠니의 문제점을 같이 지적하는 일본인도 있었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함께 배우고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국과 일본의 학생들이 있었다. 일본의 학생들도 한국과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고 함께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p> <p>야스쿠니를 답사하면서 우리나라의 용산 전쟁 기념관을 떠올렸고 군함도를 답사하면서 우리의 무관심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할 수 록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던 ‘우리들의 자세’. 일본과 한국이 지금보다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일본의 역사와 그들의 현재 모습만을 감정적으로 비난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살펴봐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에게 정말 많은 배움을 준 아사에서의 활동이 앞으로 더욱 풍성해져 후배들은 더 다양하고 깊게 역사를 공부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다!</p>
윤다영	<p>아사에서 함께 한 역사체험활동은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 속에서 '이 전쟁에서는 누가 싸우고 누가 승리했더라.' 정도의 역사가 아닌 또래의 일본 청소년들과 한두 가지의 주제를 놓고 오랜 준비기간 후에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 해봄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와 역사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겪었던 아픔들을 공부하며 서로의 아픔을 헤아려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p> <p>포럼 이외에도 홈스테이를 통해서 각 나라의 가정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보고 배우며 친구가 되는 것 또한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도 많은 배움이 되는 순간이다. 한일 간의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후 치열한 역사 속에서 피해를 입은 위안부 할머니, 원폭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 등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들을 위한 노력에 어떤 것이 있을까 알아보고 실천함으로써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어 그 후에도 역사와 관련된 일이라면 사명감을 갖고 활동하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다. 교과서의 역사는 그저 외워야 할 암기과목에 지나지 않았었다. 나와 관련 없는 이야기 몇 십 년 혹은 몇 백 년 전의 어느 사람들의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되었는데 산마을에서의 역사는 달랐다. 그 역사가 나와 어떤 관련이 있고 왜 고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이나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듣고 봄으로 생생하게 느끼고 배울 수 있는 더 넓은 배움의 장까지.</p>

인터넷과 책 속에서의 역사뿐 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또래 친구들과 멀리는 일본 친구들까지 함께 생각 해 볼 수 있었던 것은 10대의 마지막에 얻은 가장 큰 배움인 것 같다.

역사를 통해서 과거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나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깊은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 나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역사를 바로 알고 관심을 가지는 시작 단계를 지났으니 이 시작을 멈추지 않고 끝임 없는 고민과 실천방안을 생각해보고 이어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고교생활이 지나고 더 큰 배움터로 나가게 되어도 오늘날의 노력과 배움들이 분명 나의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자신해본다.

## 5. 건의사항

-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역사동아리에게는 활동기간을 1년 단위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연속성있는 활동을 기간으로 끊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 역사동아리 체험활동에 필요한 동아리 활동 지원금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 발표대회를 통해 또하나의 배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 만주를 호령한 고구려인의 기상을 찾아서

소 속	선덕고등학교 [예맥]
지도교사	김빛나
참여학생	송경민, 최종윤, 장상엽, 이영웅

## 1. 우리 동아리 소개하기

### ○ 동아리명 소개

선덕고등학교 ‘예맥’은 만주를 호령했던 우리의 민족이었던 고조선-부여-고구려의 역사적 주체였던 예맥족. 그리고 우리 민족의 뿌리인 예맥족의 정신을 살리자는 의미로 ‘예맥’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는 역사모임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중 특히 고대사에 관심이 많고, 또한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왜곡과 같은 오늘날의 역사 문제에 대한 관심거리가 있는 학생들이 모여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자료를 조사하고 토의하는 활동으로 역사의식을 키우고 있습니다.

### ○ 동아리 구성원

순번	성명	성별	학년	역할분담
1	송경민	남	1	대표,UCC편집, PPT제작
2	최종윤	"	"	인형세트제작, 자료수집
3	장상엽	"	"	대본제작, 자료수집
4	이영웅	"	"	설문지 작성, 정리, 보고서작성

## 2. 역사체험 활동 소개하기

### ○ 역사체험 활동 주제 :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처방안, 더 나아가

####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번영의 방법.

- 주제 선정 이유 : 최근 들어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제하고 지나치게 자국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은 임나일본부설, 독도영유권 주장, 일제침략사의 왜곡 등으로 우리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고 있으며, 중국은 동북공정, 요하문명론 등으로 고대 우리의 역사를 통째로 집어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학교에서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배우기에는 자료나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맥은 이에 우리는 중국의 고대역사 왜곡 현황과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우리의 대처방안과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번영의 길을 찾고자 하는 역사 체험 활동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 역사체험 활동 기간 : 2011년 4월 23일 ~ 2011년 5월 12일

○ 추진 방법 :

- 역사토론회 개최(2회) : 역사체험 활동 및 자료학습 후 개인발표 및 토론
- 현장답사(2곳) : 국립중앙박물관(고구려관 등), 고구려대장간마을
- 설문조사(1회) : 선덕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우리 역사 인식 정도를 알아봄
- 사이버학습(1회) :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http://cont151.edunet4u.net/WT15097>)
- 종이인형극 제작(1회) : '역사의 진실을 찾아서(UCC)' 촬영 제작
- 역사아카데미 참석(1회) : 동아시아 속의 한국과 중국

○ 활동 내용

날 짜	역사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4월 15일	1차 모임	1-8 교실	주제 선정 및 체험 활동 계획, 서적 선정, 설문지에 실을 설문 내용 결정
4월 27일	역사토론회(1차) 개최	1-8 교실	서적 학습 후 내용 토의. 및 설문지에 실을 설문 내용 결정. 역할분담, 현장답사지 선정,
4월 28일 ~ 29일	설문 조사	선덕중.고	선덕중·고등학생 100명(예정), 10개 문항
4월 29일	2차 모임	국어전용교실	설문결과 내용 분석. 앞으로의 체험 계획 방향 설정 UCC 대본 내용 가이드라인 논의
4월 30일	현장 역사탐방	국립중앙박물관 고구려 대장간마을	국립중앙박물관, 고구려대장간마을 탐방
5월 1일	사이버역사학습	각자 집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저자 : 양희자)
5월 10일	UCC 촬영	국어전용교실	종이인형극 (제목 : 역사의 진실을 찾아서)
5월 11일	역사토론회(2차) 개최	국어전용교실	자료학습 후 개인발표 및 토론, 보고서 작성
5월 12일	역사아카데미 (전달교육)	동북아역사재단	동아시아 속의 한국과 중국 (고려대 김택민)

<별첨 - 활동사진 첨부양식>

활동사진	
	
1차 토론회	2차 토론회
	
국립중앙박물관 답사	고구려대장간마을
	
UCC 인형극 제작	참고 서적 열람
	
사이버역사학습	역사아카데미참석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료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역사체험보고 발표자료	PPT	역사체험활동에 관한 자료조사 내용과 체험 활동 과정, 사진 보고
2	동북공정에 관한 자료	HWP	동북공정에 대한 내용과 우리의 대응 논리, 동북아시아 문화권에 대한 자료 조사 내용
3	동북공장관련 인형극	UCC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 논리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UCC 종이 인형극 제작

### 3. 성과 및 향후 계획

성과는 예맥 동아리활동 중 설문조사 결과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하여 잘 모르는 중·고등학생이 51.6%나 되었고,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도가 적은 학생의 비율도 20%가 넘었습니다. 역사체험을 하면서 고조선(단군신화 포함), 고구려 등 우리 고대사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되었고, 이를 UCC와 PPT로 정리하였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교법인 내에 초·중·고 모두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중국이 추진하는 동북공정과 요하유적지의 중화민족화에 대한 목적과 내용 그리고 모순점을 알리고, 자랑스런 우리 고대사에 대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도록 동아리 활동을 활발히 하겠습니다.

### 4. 역사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원	느 낀 점
송경민	역사체험활동을 위하여 동아리 친구들과 자료를 수집하고, 토론하고, 시나리오(대본)을 만들면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되었고, 학교공부를 마치고 새벽까지 보고서나 UCC편집을 하는 것이 무척 힘들고 피곤했지만 함께 노력한 결과물을 보니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학교에서의 수업은 일방적으로 받아가는 것이었지만, 직접 주제를 정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학생이지만 초보 역사가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최종윤	처음에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토의할 때, 저는 ‘동북공정’이 동북아시아의 공정 무역에 관한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 내용을 파악하게 되면서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서 한국인으로서 화가 났습니다. 다들 일본의 역사왜곡에만 신경을 쓰는데, 사실은 동북공정의 문제 역시 심각한 문제임에도 그 관심은 크지 않다는 것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역사체험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역사의식을 높일 방법에 더 관심을 갖고자 했습니다. 부족한 활동이지만, 우리 역사를 지키는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상엽	학교의 중간고사가 끝나는 날 다른 친구들은 시험에서 해방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 예맥동아리는 그날부터 역사체험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냈던것 같습니다. 저는 이과로 진로를 생각해서, 역사체험발표대회를 처음으로 들었을 때, 크게 매력적으로 느끼지는 않았지만, 점차 활동을 진행해 가면서, 역사에 대한 탐구는 문.이과 계열을 떠나 한국인이란 애국심을 갖고, 역사를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역사를 생각하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웅	저는 동북공정에 관한 문제를 알고 있었고, 또 한국을 옹호하는 입장이었으면서도 구체적인 근거도 제대로 알지 못했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동북공정에서 우리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 내가 알아야 할 사실들을 탐구할 수 있었고 역사적 자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의 역사체험이었지만 선생님과 동아리 친구들이 힘을 모아 준비하고 탐구, 체험하고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이 즐겁고 유익했습니다. 내 또래의 다른 청소년들도 역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5. 건의사항

- 우리나라 고대사 중 고조선, 고구려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유적지 등 현장답사 공간이 거의 전무하여 역사체험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형이나 마 우리 고대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 동북아시아의 고대사를 연구하신 교수님이나 박사님을 모시고 구금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물어보고 많은 것을 듣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역사아카데미는 평일이라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책으로 전달교육을 받았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주말에도 개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설화고등학교 - 여일 ]

# 근초고왕을 돌아보다

소 속	설화고등학교
지도교사	김 재 곤
참여학생	한동훈, 조권, 심태인, 박진수

# 1. 우리 동아리 소개하기

## ○ 동아리명 소개

설화고등학교 역사 동아리의 이름인 ‘여일(如一)’은 한글로 풀어쓸 때 ‘한결같다’는 뜻과 ‘하나같다’는 뜻을 동시에 지니는 중의적인 단어입니다.

이 동아리가 조직되기 전, 저는 단독으로 각종 역사대회에 출전하면서 번번이 예선 탈락의 쓴맛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회가 날 때마다 다른 역사대회에 도전하였고,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0년에는 동급생 조권과 힘을 합쳐 만든 동영상으로 충청남도 우리역사 바로알기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역사 동아리를 만들고자 하는 저의 계획은 크게 탄력을 받았으며, 이로써 당시 부진한 활동으로 인해 거의 해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던 기존 역사 동아리의 조직을 흡수 재구성하여 마침내 이러한 구상을 성공리에 이루었습니다.

이때 새로 시작하는 역사 동아리의 이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일어났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마침 기존 역사 동아리의 이름이 ‘여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결같이’ 역사대회에 도전하여 동급생 조권과 ‘하나같이’ 만든 작품으로 금상을 수상하고, 이로서 동아리를 새롭게 만든 기억을 살려 기존의 이름을 그대로 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한결같이 참고 인내하여 하나같이 힘을 합치면 어려운 일도 곧잘 해낼 수 있다’는 경험으로 얻은 교훈과 그러한 의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가장 좋은 구호인 것입니다.

## ○ 동아리 구성원

순번	성명	성별	학년	역할분담
1	한동훈	남	3	동아리 부장
2	조 권	남	3	동아리 차장
3	서주훈	남	3	
4	김주황	남	3	
5	주수정	여	3	
6	조문희	여	3	
7	최보혜	여	3	
8	문윤지	여	3	
9	최준혁	남	2	
10	채정국	남	2	
11	김정환	남	2	
12	심태인	남	1	1학년 기장

13	박진수	남	1	
14	김진석	남	1	
15	유창준	남	1	
16	정우정	남	1	
17	변지원	남	1	
18	정도현	남	1	
19	문성민	남	1	
20	이연령	남	1	
21	박지원	남	1	
22	나종빈	남	1	
23	이정인	남	1	
24	김찬효	남	1	
25	윤승원	남	1	
26	이슬기	여	1	
27	이승희	여	1	
28	이은비	여	1	
29	박은비	여	1	
30	이슬아	여	1	
31	이서린	여	1	

## 2. 역사체험 활동 소개하기

○ 역사체험 활동 주제 : 근초고왕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그의 업적

- 주제 선정 이유 : 서기 346년부터 375년까지, 4세기 중반의 백제를 다스린 근초고왕(近肖古王)은 5세기의 광개토왕(廣開土王), 6세기의 진흥왕(眞興王)과 더불어 삼국의 전성을 이끈 군주로 기억되지만, 정작 그에 대한 관심은 다른 두 군주에 비해 크게 저조한데다가 그의 업적에 대한 인식도 막연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최근 고구려에 편중되어 있던 고대사에 대한 관심이 분산되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 근초고왕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그동안 미흡하게 다루어지던 근초고왕에 대해 새로운 조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실제로 나타난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과장대고 날조된 근초고왕의 업적은 그 사실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백제의 요서경략설(遼西經略說)을 부회하고 있으며, 심지어 근초고왕 시대의 백제가 중국의 동부 해안 지방을 광범위하게 정복했다는 내용

까지도 각종 교양서와 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경인 것입니다. 마치 일본이 주장하던 ‘임나일본부설’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모습은 마땅히 한국의 역사 왜곡이라 불러야 할 것이지만, 정작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지적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역사 왜곡을 오로지 다른 나라의 일처럼 생각하는 편견이 우리의 객관적인 역사 인식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따라서 저는 근초고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을 동북아 역사 갈등의 문제로 확장시킴으로서 동북아 각국의 역사 관련 주장을 상대적인 위치에서 서로 동등하게 평가하고 바로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 **역사체험 활동 기간** : 2011년 2월 27일 ~ 2011년 4월 15일

○ **추진 방법** : 우선 독서를 통해 근초고왕과 관련된 제반 지식을 갖추게 된 저는 인터넷상의 비판과 토론을 통해 이러한 지식의 사실성을 검증하였고, 이렇게 수정된 지식을 통해 오늘날 대중에 알려지고 있는 근초고왕 인식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근초고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리는 동영상 제작에 착수하였고, 이것을 인터뷰 형식으로 구성하면서 연극 활동까지 더불어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하던 중, 드라마의 역사 왜곡으로 인해 근초고왕 인식에 대한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저는 인터넷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규탄함과 함께 다시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이 방면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계신 이도학 교수님을 찾아가 관련 내용을 인터뷰하였습니다.

○ **활동 내용**

날 짜	역사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2/27	근초고왕 동영상 야외 촬영	부여군 충화면 서동요 테마파크	한동훈이 근초고왕 동영상의 제작을 제안하고 조권이 합의하여, 두 사람이 함께 동영상의 내용을 구상하였다. 한동훈이 대본을 작성하고 조권의 문의를 통해 서동요 드라마 세트장이 야외 촬영지로

			결정되었고, 이 대본에 따라 서동요 세트장에서 근초고왕 인터뷰, 목라근자 인터뷰, 구저 인터뷰 장면을 촬영하였다.
3/13~5/1	근초고왕 드라마 왜곡 규탄	아산시 배방읍 설화고등학교 도서관 등	근초고왕 드라마의 역사 왜곡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이러한 사항을 드라마의 왜곡을 규탄하는 내용의 게시글로 정리하여 드라마 공식 홈페이지와 KBS 오피스에 게시하였다. 이후 동아리 모임에서 근초고왕 동영상을 감상하면서 드라마의 역사 왜곡을 지적하고 한국 내의 역사 왜곡에 대해 논의하였다.
4/1	근초고왕 동영상 실내 촬영	아산시 배방읍 설화고등학교 도서관	한동훈과 조권이 근초고왕 동영상 중 실내 스튜디오 장면을 설화고등학교 내 도서관에서 촬영하였다.
4/6	이도학 교수님 인터뷰	부여군 규암면 한국전통문화 학교	우선 지도교사 김재곤 선생님을 통해 이도학 교수님과 통화하여 인터뷰 일정을 협의하였다.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한동훈, 심태인, 박준수가 한국전통문화학교를 방문해 이도학 교수님과 만나, 문화유적학과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며 인터뷰 내용을 녹취하였다.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 료 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21세기 동북아 역사갈등과 근초고왕	PPT	발표를 위한 파워포인트 자료

2	근초고왕 동영상 (근초고왕 인터뷰)	WMV	근초고왕의 업적을 다루는 동영상 (파워포인트 첨부자료)
3	이도학 교수님 인터뷰 일부	MP3	이도학 교수 인터뷰 녹음 자료 (파워포인트 첨부자료)

### 3. 성과 및 향후 계획

우선 근초고왕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사실 근초고왕과 관련된 역사 왜곡은 사학계 일각의 억측 내지는 추정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이후 그것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면서 기정사실화되고, 급기야 이러한 학설이 더욱 확대되고 여타 비주류 학설과 조합되면서 사실로서의 가치는 전무해지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이러한 사이버적 학설이 대중매체를 통해 여과 없이 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설은 물론이고 심지어 방송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것은 곧 백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 부재를 등에 업고 상업적 목적에 의해 국수주의적 역사 왜곡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역사체험은 궁극적으로 왜곡되고 날조된 근초고왕의 허구를 걷어내고 그 진정한 업적을 재조명하여 일반 대중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적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으며, 이로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의 일처럼 생각해 오던 역사 왜곡의 문제를 내 나라의 일로 돌이켜 보고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동북아 역사 갈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4. 역사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원	느 낀 점
한동훈	<p>대개 체험 활동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일정한 목표점을 설정하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번 대회에 제출하는 체험 활동은 그러한 목표점이 없었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p> <p>저는 근초고왕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탐구하고, 이에 대한 진실을 조망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만이 아니라 한국 내에도 상당한 역사 왜곡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오늘날 역사의</p>

	역할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거듭하고, 나아가 역사를 바라보는 데 있어 보다 객관적인 관점을 갖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목표점이 분명하게 설정된 다른 체험 활동에서는 쉽사리 얻을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조권	지금까지 교과서에 간단히 나열되어 있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근초고왕의 업적을 연극 형식으로 체험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제작하면서 실제로 근초고왕이 많은 업적을 이루었으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딱딱한 암기 과목으로 배워오던 역사가 실제로는 하나의 살아 움직이는 이야기로서, 영상을 비롯한 각종 체험을 통해 더욱 쉽고 재미있게 역사에 다가설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심태인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저 막연하게만 들어서 알고 있던 요서경략설과 임나일본부설에 대해 보다 깊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 응하는 교수님의 모습과 지식을 보면서 제 미래의 직업과 관련해, 무언가 한 가지 연구에 매진해 전문성을 갖춘 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한 열정을 바탕으로 오랜 노력이 필요한 법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박진수	저는 역사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교수님을 뵈게 되면서, 그동안 교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막연한 상상을 실제로 확인한다는 호기심과 기대감에 한껏 들떴습니다. 과연 교수님은 준비되지 않은 질문에도 진지하고 침착하게 대답해 전문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로서 그동안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백제사에 대해 새롭게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5. 건의사항



# 동해 및 독도 관련 역사 체험 활동

소 속	양서자율고등학교
지도교사	홍석주
참여학생	설경영 유은혜 윤세은 이루리 정진우

## 1. 우리 동아리 소개하기

### ○ 동아리명 소개

양서 역(歷)은 양서고등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향토사 및 우리 역사 전반에 대한 연구와 탐구 활동을 통해 우리 역사를 바로 알고, 가꾸고,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문화재청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재 지킴이단’으로 위촉되어 문화재 가꾸기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토사에 대한 연구 및 발표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2011년 주요 활동

- ◆ 문화재 지킴이 활동(봉사활동-용문사 정지 국사 부도 및 비)
- ◆ 향토 문화재 연구(학술활동-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우리역사바로알기 대회 준비)
- ◆ 동해 및 독도 관련 고지도 전시회(독도 지킴이 거점학교)
- ◆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문화재 체험 활동(년 4회)

### ○ 동아리 구성원

순번	성명	성별	학년	역할분담
1	설경영	남	2	팀 총괄
2	유은혜	여	2	고지도 자료 조사, 사진 촬영
3	윤세은	여	2	판넬 자료 조사
4	이루리	여	2	보고서 작성, ppt 제작
5	정진우	남	2	장소 섭외, 준비물관리, 예산관리

## 2. 역사체험 활동 소개하기

### ○ 역사체험 활동 주제 : 동해 및 독도 관련 고지도 전시회

#### - 주제 선정 이유 :

- 일본이 과거 청산을 이웃국가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식민역사를 미화하는 등 심각한 갈등을 거듭하고 있음.
- 동북아의 역사 갈등과 영유권 분쟁에 대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 분담 필요
- 독도 및 동북아 영토, 영해 문제의 국제적 분쟁화에 대비
- 일반 대중의 독도 영토 의식이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를 자신 있게 제시하는 경우는 매우 적은 상황

○ 독도 영유권 주장의 객관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고지도 전시회를 다양한 계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할 필요성 증대

○ 역사체험 활동 기간 : 2011년 3월 5일 ~ 2011년 11월까지 예정

○ 추진 방법 : 길거리 전시회 총 16 회 예정

○ 활동 내용

날 짜	활동사항	장소	세부 내용
2011.03.19 ~04.16	기획	동아리실	- 탐구 주제에 따른 세부 계획 설정 - 역할 분담 협의 - 예산 작성
2011.03.15 ~05.06	시민단체 협조	동아리실	-독도 수호대(홍보물, 전시회 준비물 등) -독도 사랑 협의회(고지도 관련 자료)
2011.05.01 ~현재	동해 및 독도 관련 고지도 전시회 준비	동아리실	-전시회 기획 회의 -고지도 제작(인터넷 자료 및 독도 사랑회 협조) -전시회 장소 협조(양수역, 운길산역, 용문역 등) -전시회 팸플렛 / 전시물 제작/ 설명, 안내 자료 제작
2011.05.07 (1회,양수역)	전시회 개최	양수역	-시간: 2010. 05.07 -장소: 양수역 -안내: 양서고등학교 학술 봉사 동아리 학생
2011.05.26 (2회,양서고등학교)	전시회 개최	교내	-시간: 2010. 05.26 -장소: 양서고등학교 -안내: 양서고등학교 학술 봉사 동아리 학생
2011.06.04 (3회,양수역)	전시회 개최	양수역	-시간: 2010. 06.04 -장소: 양수역 -안내: 양서고등학교 학술 봉사 동아리 학생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 료 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활동 보고서	문서(HWP)	- 동해 및 독도 관련 역사 체험 활동 보고서
2	지도 및 판넬	사진(JPG), PDF	- 동해 및 독도 고지도 전시회에 사용하는 전시자료

3	활동 사진	PPT	- 동해 및 독도 고지도 전시회 활동사진
---	-------	-----	------------------------

### 3. 성과 및 향후 계획

사실 독도는 현재 우리가 실효지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역사적인 근거를 내세워 독도가 예전부터 자국의 영토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역사적 근거를 들어가면서 동해 또한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이 많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역사적으로 예전부터 독도가 우리 영토였으며,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였다는 명백한 근거를 말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옛사람들의 영토의식이 가장 잘 반영되는 고지도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따라서 이번에 시행한 동해 및 독도 관련 고지도 전시회로 인해 사람들에게 평소에 보지 못했던 고지도를 보여주어 관심도 끌면서 옛날부터 서양인, 한국인, 심지어 일본인들까지 독도는 우리의 영토요, 소속된 바다는 일본해가 아닌 동해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알렸다. 거기에 현재 일본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근거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판넬도 제작함으로써 단순히 고지도 감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심화된 정보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해 더욱 의미 있는 전시회가 되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과에 더불어 앞으로 매달 2번씩 양수역, 운길산역, 용문역에서 순회 전시회를 개최해 좀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역사적인 근거를 확인하고 일본의 주장의 허구성을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4. 역사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원	느 낀 점
설경영	이번 독도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공부하다보니 감정적으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주장하고 관심을 갖지 못 했던 예전 모습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제는 내가 그 근거들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입장이 되어보니 그래도 아직도 공부할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매우 뿌듯했고, 자기발전의 시간이 되었다. 같이 준비한 친구들과 협동하고 서로 도와가며 앞으로 더 좋은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유은혜	역사란 인류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 이라는 말

	<p>처럼</p> <p>역사 그자체가 우리 삶의 모습을 그려낸 것 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가장 가깝고 친밀한 학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의 실체나 이해에는 아직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역사체험활동이 아니었다면 알지 못 했을 우리 역사의 실체나 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다.</p>
윤세은	<p>전시회를 처음 준비하면서 걱정이 많이 들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뻐다. 몸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전시회를 보러 오시는 분들께서 응원의 한 마디를 남겨주실 때마다 더욱 힘이 나서 잘 끝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전시회를 위해서 그 동안 부족했던 점을 완벽하게 고치도록 노력해야겠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나도 정확히 몰랐었는데, 이번에 조사하면서 자세히 알게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독도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역사 체험 발표대회를 준비할 때 시간이 부족해서, 걱정이 많이 됐는데 무사히 준비를 마쳐서 다행이고 좋은 경험이었다. 앞으로도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독도를 알리는데 앞장서야겠다.</p>
이루리	<p>이젤 나르고 고지도로 옮길 때는 힘이 조금 들기도 했지만 우리가 직접 전시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매우 뜻 깊었다. 그 동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만 주장했을 뿐 그 근거는 자세히 몰랐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 근거들을 하나하나 정확히 알 수 있었다. 또 사람들에게 고지도에 나와 있는 증거와 일본 주장에 대한 반박을 설명해 드릴 때는 정말 뿌듯했다. 앞으로 전시회를 계속 개최해서 더욱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싶다.</p>
정진우	<p>평소 뉴스나 신문에서 일본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하여 가르치는 등 분쟁을 일으킬 때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을 계기로 전시회라는 형식을 통하여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릴 수 있게 되어 기뻐다. 또 스스로도 좀 더 논리적으로 일본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게 되어서 마음이 뿌듯하다.</p>

## 5. 건의사항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체험활동을 통해 다양한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역사체험발표대회처럼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끝이 없는 갈등상황, 해결책은?

소 속	양정고등학교 [우리 역사탐구반]
지도교사	이두형, 김기국
참여학생	노지형, 강민영, 김영민, 장동원, 김한울

# 1. 우리 동아리 소개하기

## ○ 동아리명 소개

양정고등학교 ‘우리역사탐구반’은 역사동아리로, 2007년 처음 계발활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05년 개교된 최초의 민족 사학으로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양정’의 역사를 탐구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이제는 역사 전반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 목표는 양정고등학교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이해하여 양정인으로서 모교에 대한 자부심과 애교심을 기르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흥미와 탐구심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2008년에는 계발활동 특활반으로 1학년 중심의 다채로운 역사체험 활동을 통해서 역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많이 증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9년부터 많은 학생들의 관심 속에 역사 동아리로 정식 출범하게 되었으며, 지도교사와 학생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활동하는 동아리 부원들 중에서 테스트를 거쳐 선발하여 제4회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대회에 참가하여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역사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활동을 하였으며, 제5회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대회 본선에 진출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 올해는 1,2학년들로 구성되어 국립고궁박물관 및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여 교과서와 연계된 유물 및 유적지를 돌아보는 현장체험학습을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역사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어 다시 역사체험발표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 ○ 동아리 구성원

순번	성명	성별	학년	역할분담
1	노지형	남	2	자료 수집 및 체험활동 총괄
2	강민영	남	2	자료 수집 및 자료집 제작 총괄
3	김영민	남	2	자료 수집 및 파워포인트 제작
4	장동원	남	2	자료 수집 및 답사 총괄
5	김한울	남	1	자료집 및 영상 제작 총괄

## 2. 역사체험 활동 소개하기

○ 역사체험 활동 주제 : 끝이 없는 역사 갈등, 해결책은?

- 주제 선정 이유 :

국내에 많은 역사 갈등 문제 해결하기 위한 단체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역사 갈등 해결에 큰 진전이 없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두고, 왜 이렇게 문제 해결이 어려운 지 그 원인을 탐구해 보았다. 또 그 원인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학생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 그 방안에 따라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 역사체험 활동 기간 : 2011. 3. 23 ~ 5.13

○ 추진 방법 :

1. 역사 갈등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체험활동 주제를 선정
2. 설문조사, 토론을 통하여 역사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원인을 탐구
3. 학생 나름의 역사 갈등 문제 해결 방법을 토론을 통하여 선정
4. 특정한 주제(식민지 근대화론 vs 내재적 발전론)를 선정하여 직접 학생들이 직접 해결해 보는 체험활동 실시
5. 객관적인 자료 수집 및 연구를 통하여 결론을 내림
6. 확정된 결론을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연극
7. 만들어진 UCC를 인터넷 배포 및 조회 시간에 학생들에게 방영
8. 차후 설문조사 후 변화된 학생들의 인식 분석

○ 활동 내용

날 짜	역사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3/23	활동주제 선정 역할 분담	교내 상담실	역사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주제로 선정하고 역할분담
3/24 ~3/25	설문지 제작	교내 상담실	학생들과 일반인에게 배포할 설문지 제작
3/26 ~28	설문지 배포 및 분석	교내 및 학교주변	교내외에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합한 설문지 분석
4/1	역사 갈등 문제 해결이 어	사회과	역사 갈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을 토의

	려운 원인 토의	교과교실	
4/4	체험활동 계획 순서 수립	사회과 교과교실	객관적인 자료 수집 및 결론 내리기, 공감대 형성하기 위한 UCC제작 등
4/5 ~4/8	자료 수집 및 객관적 결론 내리기	사회과 교과교실	한국과 일본의 주장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해보고 결론 내리기
4/9	답사 활동	인천 옛 조계지	인천 개항장 답사
4/11 ~4/13	UCC 제작	교내 상담실	인천 답사 시 촬영한 영상으로 다큐멘터리 제작
4/16	답사 활동	정동 일대	정동 일대 답사
4/18 ~4/20	UCC 제작	교내 상담실	정동 답사 시 촬영한 영상으로 다큐멘터리 제작
5/4 ~5/7	연극 대본 작성 및 연극	교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연극 제작 후 촬영
5/9	UCC 유포	교내	유튜브, 싸이월드 등 인터넷에 게시하고, 학생들에게 조회시간에 상영
5/11	설문조사	교내	영상을 보고 난 후 학생들의 인식 변화 조사
5/13	최종 마무리	교내	미흡한 부분 보완 및 마무리

###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료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UCC	동영상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극화하였음.
2	다큐멘터리	동영상	옛날 침탈의 흔적이 남아있는 인천 옛 조계지 및 정동 일대 답사한 내용
3	자료집	한글파일	학생들의 활동 내용을 자료집으로 엮음

## 3. 성과 및 향후 계획

- 학생 차원에서 역사 갈등 문제를 해결해 봄으로써 학생들도 역사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경험한 시간이었다.
- 역사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과거의 지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 ‘우리 역사 탐구반 학생’들이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각 반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한다.
- 국립중앙박물관, 민족문제연구소, 나눔의 집 등 교외에서 역사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수시로 답사를 할 계획이다.

#### 4. 역사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원	느 낀 점
노지형	<p>처음 주제를 정하고 나서는 너무 주제가 무겁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앞섰다. 그래도 마음을 굳게 먹고 주제가 무거운 만큼 더욱 더 열심히 체험활동에 임했다. 친구들과 조선의 근대화가 시작된 인천 개항장과 차이나타운에 가서 직접 경험해 보고 서울 정동일대 지역에 답사를 가서 우리가 직접 답사 영상도 제작해 보았다. 또한 역사 갈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다 같이 단편 드라마도 찍고 손수 제작하고 나니 이 모두가 하나의 추억으로 또 내 인생에 좋은 경험으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비록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지난 2달 동안 모두가 합심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내 스스로 너무나 뿌듯하다.</p>
강민영	<p>내가 좋아하는 역사에 대해 친구들과 모여 토론하고 연극을 짜는 것에 대해 기쁘고 설레었다 매일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자료집을 제작하면서 힘들었지만 즐거웠기에 힘든지 모르고 한 것 같다. 대회가 끝나면 친구들과 정동과 인천개항장을 답사하고 , 밤늦게 분식으로 저녁을 때우면서 열심히 토론했던 일도 다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p>
김영민	<p>원래 역사기행 같은 많이 하고 역사에 관심은 많았지만 개항장의 역사는 아는 것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대회로 인하여 개항장의 역사와 일본과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왔으면 좋겠다.</p>
장동원	<p>평소에 역사에 관심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 역사를 좋아하고 역사학파에 가고 싶었던 내 친구 민영이에게 많은 영향을 받아서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p> <p>이번 체험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 것 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역사에 대한 지식이 얕은 나로서는 힘든 점이 많았다.</p>

	하지만 그렇게 힘든 만큼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어서 보람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김한울	이번 체험활동에 참가하는 학생 중 나 혼자만 1학년이어서 내심 걱정이 많았다. 그렇지만 형들이 잘 이끌어주어서 활동하는 시간이 참 재미있었다. 특히 답사활동 했던 것, 교수님들에게 인터뷰 요청했다가 퇴짜맞은 사건, 연극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서슴지 않고 지원하겠다.

## 5. 건의사항

1. 체험 활동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특히 대회 기간 내에 중간고사가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대회 기간을 더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아마 지원금이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이 학생 신분이다 보니 활동하는데 드는 비용이 많이 필요했지만 부족하여 참가하는 팀에게 지원금을 지급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 주제가 동북아지역 역사 갈등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것 말고도 다양하게 다뤄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제를 폭넓게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독도 홍보 UCC

소 속	서울 오산중학교
지도교사	이 춘 산
참여학생	강병엽, 김선웅, 장경운

## 1. 우리 동아리 소개하기

### ○ 동아리명 소개

역사 교육의 목적은 ‘역사적 사고력’의 향상이다. 역사적 사고력은 단순히 교과서 속에 제시된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암기한다고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역사 체험활동은 텍스트로만 접하던 어려운 역사용어들이 역사적 사건 현장을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에게 살아 있는 단어로 인지되기에 그 효과가 매우 높다. 본교의 ‘문화유적답사반’은 2007년부터 15명 내외의 학생들(1~3학년 통합)로 구성된 상설 동아리이다. 한 달에 한 번씩 목요일 오후 C.A 시간을 이용하여 용산구 및 서울 지역 박물관 및 역사 유적지 등을 답사하는 동아리이다.

### ○ 동아리 구성원

순번	성명	성별	학년	역할분담
1	강병엽	남	3	전문가 인터뷰 및 독도 UCC 제작
2	김선웅	남	3	외국인 설문 및 UCC 제작
3	장경윤	남	3	독도 관련 역사적 자료 수집

## 2. 역사체험 활동 소개하기

### ○ 역사체험 활동 주제 : 외국인을 위한 독도 홍보 UCC

- 주제 선정 이유 : 1980년대 이후 일본은 끊임없이 한-일간의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최근에는 2005년에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불법으로 강제 편입한 날을 기념하여 ‘다케시마(竹島)의 날’을 제정하였고, 올해에는 일본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일반인에 공개됨에 따라 독도를 둘러싼 역사왜곡 이슈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UCC 제작을 통해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역사적, 지리적으로 알리고, 일본이 독도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유를 밝히려고 하였다. 또한 ‘독도가 우리 땅’임을 대한국민 국민이 알 뿐만 아니라, 전세계 외국인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영어자막을 사용하여 UCC를 제작하였다.

### ○ 역사체험 활동 기간 : 2011년 4월 15일~5월 11일

### ○ 추진 방법

- 자료 수집 : 교과서 및 인터넷을 통한 독도 관련 자료 수집
- 토론 : 동아리 구성원들끼리 독도 관련 토론 실시
- 전문가 인터뷰 : 학교 국사 선생님 인터뷰
- 설문조사 : 이태원에서 외국인 대상 독도 관련 설문조사 실시
- 외국인 인터뷰 : 학교 원어민 강사 인터뷰
- 독도 홍보 UCC 및 파워포인트 제작

○ 활동 내용

날 짜	역사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2011.04.15	주제 선정	학교 회의실	‘역사 체험활동’ 주제 선정 (독도 홍보 UCC 및 PPT 제작으로 결정)
2011.04.22	토론	학교 휴게실	독도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일본의 주장과 의도, 역사적·지리적 근거)
2011.05.04	토의 인터뷰	학교 휴게실 학교 교무실	독도 UCC 제작 스토리 보드 작성 전문가 인터뷰(학교 선생님)
2011.05.05	설문 조사	이태원 일대	독도 관련 외국인 설문 조사
2011.05.11	협의	학교 교무실	제작한 독도 UCC 검토 및 수정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 료 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외국인을 위한 독도 홍보 UCC	UCC	독도의 가치(생태적, 경제적), 외국인 설문조사 및 인터뷰, 전문가 인터뷰
2	동쪽 끝, 우리 땅 독도	PPT	독도 개관, 독도의 역사, 독도의 가치, 일본 주장 반박 및 근거

### 3. 성과 및 향후 계획

‘독도가 우리땅’임을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알고 있다. 물론 여러 언론에서 지적 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독도의 지리적 중요성과 역사적으로 우리의 땅임을 말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독도 홍보 UCC는 ‘독도가 우리땅’임을 외국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영어 자막을 사용하였다. 우리 동아리는 이 UCC를 동영상 전문 커뮤니티인 유튜브(<http://kr.youtube.com>)에 올려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독도가 우리땅’임을 알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우리 동아리 구성원들은 사이버 외교사절단인 ‘반크’, ‘사이버 독도사관학교’ 등의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 4. 역사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원	느 낀 점
강병엽	이번 기회에 독도 분쟁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서 충격적인 것도 있었고, 새로 알게 된 사실도 있었다. 충격적인 것은 구글 번역에 ‘동해’라고 치자, ‘the sea of Japan’이라고 나온 것에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났다. 이것이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사소한 것은 없다. 특히나 동해, 독도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족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독도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김선웅	이번 독도 UCC를 제작하며 독도에 관한 많은 사실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태원 지역의 외국인 설문조사를 통해 상당수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독도 갈등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외국인에게 널리 알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인터뷰 및 자막 번역을 통해 영어 실력도 늘고, 많은 사회적 경험을 얻게 되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
장경윤	어려서부터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독도 UCC를 만들면서 내 자신이 독도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는 게 많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독도 관련 일본의 주장을 무조건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독도가 우리 땅’인 역사적 근거를 명확히 알고 그 사실을 널리 알려야겠다.

#### 5. 건의사항

현재의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대회’는 3월말에 공고를 하여, 5월초에 결과물을 제출하고 본선을 6월에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역사 선생님들이 동아리 학생들과 충분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다소 급조하여 발표대회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대회’ 공고는 현행대로 3월말 4월초에 하여 신청을 받고, 해당 주제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의 동아리 활동을 운영한 후, 2학기 초~9월 쯤에 결과물을 제출(본선 대회는 10월 개최)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 잃어버린 돌사자

소 속	울산외국어고등학교 [ 반딧불 ]
지도교사	신광윤 선생님
참여학생	이경민 오지인 김선화 김혜원 손효정

## 1. 우리 동아리 소개하기

### ○ 동아리명 소개

저희 동아리 반딧불은 울산외국어고등학교의 학생들 중 역사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로 이루어진 동아리로, 반딧불이라는 이름에는 작은 빛이나마 하나하나 모아 잊혀가는 역사를 밝혀 알리고자 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 ○ 동아리 구성원

순번	성명	성별	학년	역할분담
1	이경민	여	2	기획 및 보고서 작성
2	오지인	여	2	자료조사 및 촬영
3	손효정	여	2	PPT 제작
4	김혜원	여	2	<잃어버린 돌사자> UCC제작, 시나리오 작성
5	김선화	여	2	자료조사 및 분석

## 2. 역사체험 활동 소개하기

### ○ 역사체험 활동 주제 : 일본에 의해 약탈당한 문화재

- 주제 선정 이유 : 저희 동아리는 체험이라는 것에 무게를 실어 주제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울산이라는 도시가 많은 유적이 없는데다가, 또 직접 체험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지리적 여건 속에서 저희는 울산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은 가 보았을 문화재의 도시인 경주를 떠올리게 되었고 그러한 방향으로 조사를 하던 중 다보탑의 잃어버린 돌사자에 대해 알게 되었고, 더 큰 범위에서 일본에 의해 약탈당한 문화재가 경주에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많은 이들은 그러한 사실도 모른 채 그저 눈으로만 보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로 하여금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리는 작게는 경주, 크게는 우리나라 전체의 일본에 의해 약탈당한 문화재를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 역사체험 활동 기간 : 2010. 4. ~ 6.

○ 추진 방법 : 울산외고 역사동아리 반딧불은 답사를 통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 1. 실내조사

일본에 약탈된 문화재들에 대해 알아보고, 불국사의 다보탑의 돌사자, 석굴암 뒤편의 오층 석탑, 몽유도원도, 관음수월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조사 중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저자인 유홍준 박사님께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 2. 현지답사

답사할 곳은 울산의 바로 근처에 있으면서, 옛 신라의 수도로서 많은 문화재들이 있어 일제강점기 때의 도굴과 문화재 수탈의 근거지였던 경주로, 저희 반딧불은 경주문화원, 경주국립박물관, 신라역사과학관, 불국사를 답사 하였습니다.

먼저, 인터넷, 문헌상이 아닌 더 심화되고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경주문화원을 방문 했습니다. 그 곳에서 경주문화원장님을 만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정보들과 잘못 알고 있었던 정보들까지 오래 전의 역사까지 넘나들며 배울 수 있었으며 긴 시간 동안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었던 정보들과 경주문화원에서 새로 알게 된 정보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경주국립박물관을 답사하였고 석굴암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기 위하여 신라역사과학관을 답사했으며, 마지막으로 저희 UCC의 제목과 같은 잃어버린 돌사자를 보기 위하여 불국사를 답사하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3. 추가조사 및 인터뷰


답사를 통해 새로이 얻은 정보를 자세히 조사하며 본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제에 의해 약탈된 문화재를 아시나요?’라는 질문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 4. UCC 제작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자는 취지로 <잃어버린 돌사자>라는 UCC를 제작하였습니다.

4

### ○ 활동 내용

날 짜	역사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4.1	주제선정	2-5교실	대회 참가를 위해 일제에 약탈당한 문화재라는 주제를 선정함.
4.2~4.7	주제에 대한 실내조사	교내 정보실	주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기 위해 유홍준 박사님께 메일을 보내고, 여러 문헌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조사함.  <small>※ PC-연명해설요 울산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 본번서명: [redacted] (0) 254042 (주) [redacted] [redacted]          발송시간: 2011-04-05 (화) 23:43:37 (GMT +09:00 (서울, 도쿄))          받는사람: 김신하 [redacted]</small>  <small>이구를 선생의 (문헌) (문화) (물) (재)가 도움을 것입니다. 저는 저술에 비해 인발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small>
4.8	답사준비	교내 정보실	경주 답사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고 준비함.
4.9~4.10	경주답사	경주일대(불국사, 신라역사과학관, 경주문화원, 경주국립박물관)	 (경주국립박물관)

			 (경주문화원)   (불국사)
4.11~4.15	추가정보조사, 인터뷰	교내 정보실 울산외고 교내	경주 답사에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심화된 사실에 대하여 추가 조사하고, 본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제에 약탈된 문화재를 아시나요?'라는 물음으로 인터뷰를 진행함.
4.16~5.13	UCC제작	교내 정보실	인터넷 및 문헌을 통한 조사와 직접 체험한 것들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동영상의 세밀한 구성 및 자막작업, 동영상 편집 등을 함.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료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 잃어버린 돌사자 >	동영상	불국사 다보탑의 잃어버린 돌사자를 필두로 일본에 의해 약탈당한 우리의 문화재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대안을 제시한다.
2	< 잃어버린 돌사자 >	PPT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잃어버린 돌사자>동영상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실었다.

### 3. 성과 및 향후 계획

이번 체험활동은 개개인 모두에게 실보다 득이 많았던 체험활동이었습니다. 먼저 동아리 구성원들에게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계획으로 모두의 힘을 합쳐야만 진행될 수 있었던 활동이었기 때문에 더욱 뜻 깊었습니다. 또한 근처 경주에서도 일본에 의해 약탈당한 문화재가 있다는 사실에 분개했고 더 나아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저희 스스로를 반성했으며 아직도 이러한 중요한 사실들에 대해서 무지한 많은 이들에게 알려야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체험활동을 하면서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조선왕실의게 등의 우리의 문화재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더 많은 문화재들이 고국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하며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는 번역활동, 문화재반환 캠페인등을 지속할 것입니다.

## 4. 역사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원	느 낀 점
이경민	처음, 주제를 정할 때 체험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춘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동북공정, 독도문제 등을 주제로 정했다면 그곳에 직접 가 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주체적으로 이 문제들을 다룰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주라는 아주 가까운 곳에 직접 가보고 알아보고 했던 것이 일본의 문화재 약탈이라는 것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한 분노 또한 더욱 강하게 느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역사를 책으로만 배우기보다 직접 체험하면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문제에 대해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오지인	모든 계획과 활동이 자체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정말 알찼던 경험이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아간다는 정확한 목표 아래에서 친구들과 함께 계획하고 체험활동을 하니 더욱 동기부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람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동안 안타까운 것이 너무 많았다. 약탈된 문화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적었고 이를 위한 확실한 계획이 없었다. 과연 이런 문화재를 알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다. 우리나라의 열과 아름다움, 또한 깊은 역사를 담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 좀 더 생각하고 고민을 하게 한 좋은 기회였다.
손효정	동북아에 대한 역사적 갈등이라 하면 일제강점기 때의 수탈이라든가 동북공정과 같은 갈등 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다. 바로 우리나라가 동북아 갈등의 주된 국가 중 하나이면서 정작 나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천년의 고도를 가진 경주를 조사하면서 우리의 바로 옆 도시 경주만 해도 일본에 의해 왜곡되고 숨겨진 아픈 사실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또한 역사를 모르면 역사 왜곡에 대응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의 아픈 역사를 모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우리의 보물들이 빼앗겨 버리고 만다. 그러나 이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보물들은 찾아 올 수 없는 눈앞의 떡이 되어버렸다. 우리의 것을 잘 알아야지만 우리의 것을 지킬 수 있다. 우리의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 누구도 우리의 것을 찾아주지 않을 것이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소통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현재에서 과거를 공부해 우리의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김혜원	이번 대회 준비과정에서 마땅한 주제를 찾기 위해 조사를 할 때 평소 나는 전혀 듣지도 못했던 역사 관련 논쟁과 사건이 아주 많았다. 모두 우리나라의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과 논쟁이었지만 나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역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현재 동북아 관련 사안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았다. 동북공정이라던가 정신대 관련 문제들은 끝나지 않는, 그리고 오랜 숙제로 남아 있다. ‘아직도 우리가 해결하고 되찾아야 하는 역사는 많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잃어버린 돌사자”라는 주제를 직접 경주문화원과 박물관, 불국사를 방문할 때는 어릴 적의 형식적인 체험과는 달리 선조들의 흔적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김선화	중학교 때 다보탑에 다녀왔을 때에는 돌사자가 있는지조차 몰랐다. 말로만 듣던 그 유명한 다보탑을 직접 보게 된 것에 마냥 좋았고 거기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하지만 돌사자의 사연을 조사하고 다보탑과 돌사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난 후에 다시 찾아갔을 때에는 그곳에 묻어난 역사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우리가 우리

의 역사를 자랑스러워하기 이전에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 5. 건의사항

- 답사를 하고도 그 많은 사진들과 내용들을 정리하고 UCC를 편집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마침 중간고사를 준비해야하는 기간이었고, 지금 역시 기말고사를 준비해야하는 기간입니다. 더 많은 내용과 생각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기간을 방학 중으로 정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영산포 근대거리를 걷다

소 속	전남외국어고등학교
지도교사	이 순 일
참여학생	오하경 김현석 정연수 최란 송은재

## 1. 우리 동아리 소개하기

### ○ 동아리명 소개

[대 자 역 동]

저희 동아리 대자역동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동아리’라는 뜻으로, 2010년, 과거를 알고 또한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18살과, 19살들이 모여서 만든 동아리입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역사탐방, 역사 전시회, 지역사 알리기 활동 및 해외에 소개된 잘못된 역사를 시정하는 단체 HIFCO의 전남지부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사소한 역사에도 관심을 갖고 재조명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동아리가 되기 위해 앞으로 더욱 정진 할 것입니다.

### ○ 동아리 구성원

순번	성 명	성별	학년	역 할 분 담
1	오 하 경	여	3	답사준비, 자료수집
2	김 현 석	남	3	팸플릿 제작, 연극준비
3	정 연 수	남	2	파워포인트 제작
4	최 란	여	2	PPT 대본, 연극 극본 제작
5	송 은 재	남	2	UCC 제작

## 2. 역사체험 활동 소개하기




### ○ 역사체험 활동 주제 : 영산포 근대 거리를 걷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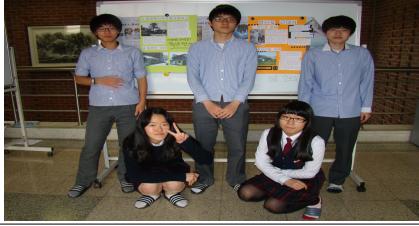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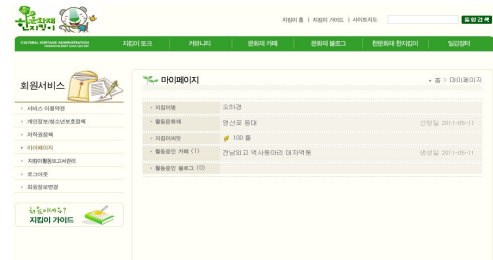
- 주제 선정 이유 : 저희 동아리는 주제 선정을 위해 자료조사를 하던 중, 우리 학교가 위치한 나주 영산포가 일제 강점기 전남지역에서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였던 곳 이었고, 영산창은 호남의 수많은 곡식과 물자가 수탈되었던 곳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경술국치 101년을 맞은 지금, 일제치하 36년의 서러움을 잊지 말자는 취지하에 일제 강점기 영산포의 수탈과 서러움의 역사를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 역사체험 활동 기간 : 2011년 3월 22일 ~ 2011년 5월 13일

○ 추진 방법 : 주제선정과 역사탐방에 대한 자체 회의를 한 뒤 영산포로 역사탐방을 다녀오고 다시 한 번 자체회의를 열어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를 제작하고 연극 대본을 만들었으며 한문화재 한지킴이 운동에 영산포 등대 지킴이로 문화재 보존활동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영산포 근대사 팸플릿을 제작하여 학교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 활동 내용

날 짜	역사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3.22~4.16	주제 회의	교내	주제정하기, 답사일정에 대해 토의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17	영산포 답사	영산포 근대역사거리	회의에서 선정한 영산포의 근대 유적지들을 답사하였습니다.  <조선 식산은행 건물>  <동양척식주식회사 문서고>
4.18~5.10	PPT, 연극극본 제작	교내	영산포 답사과정을 담은 PPT와 영산포의 일제 강점기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한 연극극본을 제작하였습니다. 
5.2	팸플릿 제작 및 게시	교내	영산포 근대사 팸플릿을 제작하여 학교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5.11	한문화재 한지킴이 신청	교내	<p>문화재청이 주관하는 한문화재 한지킴이 운동에 영산포 등대 지키미로 신청하였습니다.</p>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 료 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영산포 근대거리를 걷다	PPT	영산포의 근대 유적지 탐방 및 정리
2	영산포 근대거리를 걷다	HWP	영산포에 대한 PPT 대본
3	김서방의 비애[UCC]	WMV	1910년대 영산포를 연극으로 재현
4	김서방의 비애	HWP	연극 '김서방의 비애' 극본

### 3. 성과 및 향후 계획

이번 역사 체험 활동을 통해 영산포의 가슴 아픈 근대사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일제의 수탈이 자행되었던 현장을 바라보며 우리가 역사를 잊지 않아야 평화로운 미래를 향한 발전도 있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밖에 교내 팸플릿 게시를 통하여 학우들에게도 영산포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학우들에게 역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매우 뜻 깊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역사체험활동의 결과물로서 만든 PPT, UCC, 팸플릿은 올해 12월에 개최되는 학교축제에서의 역사동아리 전시회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문화재 한지킴이 활동은 시당국에서 허가가 나는 대로 활동을 시작하여 현 상태에 대한 개선과 영산포 등대의 보존 및 홍보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 4. 역사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원	느 낀 점
오 하 경	<p>평소 제 고향 광주의 지역사에 관심이 많던 제가 영산포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서 3학년이 되도록 이곳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지 못했다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 주제 선정하기 위해 자료조사를 하던 중, 일제 강점기 가장 수탈이 가혹했던 곳 중 한곳이 바로 영산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산포 구석구석 답사를 다니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산포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답사를 다녀오니 근대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될만한 가치가 충분한 이런 곳이 대중들에게 너무나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 역사체험활동의 결과물들이 영산포의 근대유적지를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번 역사체험활동으로 역사는 지속적인 관심과 보존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p>
김 현 석	<p>고등학교 생활을 나주 영산포에서 하면서 영산포가 일제 강점기 수탈이 크게 자행됐던 현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소 근대사에 관심이 많지 않았던 나이지만, 이번 체험을 통해 일제에 의해 자행된 수탈의 현장을 직접 느껴봄으로써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의 한 면을 볼 수 있었다. 특히나 영산포는 해방 이후 개발이 거의 되지 않은 곳이라 근대사에 관련된 문화재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관리가 턱없이 부족했다. 우리의 역사의 한 장면이 이렇게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우리는 문화재 관리를 위해 실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았으며, 이번 체험을 통해 문화재 보호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어서 뿌듯했다.</p>
정 연 수	<p>영산포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이곳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언제나 아쉬웠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금 더 영산포에 가까워 질 수 있었다는 점이 정말 뜻 깊었습니다. 영산포의 시계는 옛날 일제 강점기 때부터 멈춰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살아있는 역사의 장들이 방치되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잠자코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이 직접 발 벗고 나서서 우리의 역사를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p>
최 란	<p>제가 짧은 시간이나마 배웠던 근대사와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라는 공간과는 같은 한국이지만, 서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비록 공간적으로는 같은 한국이지만, 근대사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할까요, 그렇지만,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 주변을 답사하면서, 옛날 일제강점기 하 모습이 남아있는 흔적을 보면서, 역사의 흐름을 인식하게 되었고 또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도 역사의 한 부분이 라는 걸 느꼈습니다. 비록 담당하지 못한 역사지만, 남아있는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가꾸어 가면서 반성하는 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p>
송 은 재	<p>지금까지 교과서에 나온 역사만 배우고 가까운 지역의 역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3년간 공부하고 기숙사에서 살게 될 학교가 있는 영산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 영산포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근대까지 수상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던 영산포의 역할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영산포가 많이 쇠퇴한 지역이 되었지만, 남아있는 역사를 잘 보존해서 다시 관심을 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p>

## 5. 건의사항

제출기간이 좀 더 여유로워졌으면 합니다. 학기 중에는 학교생활로 바쁜 학생들에게 대회준비는 힘들어서 시간 때문에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저희도 시간이 부족하여 못한 부분이 있어 아쉬웠습니다. 제출기간을 방학 중으로 옮겨 더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게 되었으면 합니다.